따뜻한 경북교육

정책연구(현장)2023-04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 기초 연구

책임 연구원 박현동 (청통중학교 교장)

공동 연구원 김유나 (청통중학교 교사)
박진형 (북삼고등학교 교사)
서현주 (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미형 (신상중학교 교사)

자문 위원 이강옥 (영남대학교 교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따뜻한 경북교육

정책연구(현장)2023-04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 기초 연구

책임 연구원 박현동 (청통중학교 교장)

공동 연구원 김유나 (청통중학교 교사)
박진형 (북삼고등학교 교사)
서현주 (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미형 (신상중학교 교사)

자문 위원 이강옥 (영남대학교 교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 요약

지역 사투리를 비롯한 지역의 국어문화가 무관심 속에 점차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겨레 문화의 원류였던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는 한국문화의 뿌리이자 경북 지역 정신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고 향유·보전·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경북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마다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어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국어문화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북 지역에는 훈민정음해례본 등을 바탕으로 한 자랑스러운 한글 문화유산, 경북 지역의 사투리 문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문학 자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경북 지역의 내방가사와 하회별신굿 탈놀이, 예천청단놀음 등 자랑스러운 국어 문화유산들이 많다. 이러한 국어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에도 각각 흩어져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본 연구진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북의 국어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어문화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에서 국어문화관을 운영한다면 경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화의 산업화에 협조할 수 있게 되며, 경북 지역 문화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데에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어문화관의 운영은 현재와 지난 시대의 국어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며,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국어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첫째,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의 전시 내용을 구안해보고, 둘째,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의 체험 내용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안해보고, 셋째,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을 위한 예산과 관리 인력 확보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방안까지 국어문화관 운영의 기초가 될만한 모든 부분을 생각해보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차 례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6

Ⅱ. 국어문화 인식 및 국어문화관 관련 현황 분석 ····· 9
1.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 ····· 9
2.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체험교육기관 현황 ····· 11
3. 온라인 국어문화 체험 관련 현황 ····· 14
4.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의 의의 ····· 24

Ⅲ. 국어문화관 1관 전시 내용 구성 방안 ····· 26
1.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 ····· 26
2. 경북 지역 국어문화 전시 내용 선정 ····· 28
3. 경북 지역 국어문화 전시 내용 정리 ····· 29
4. 효율적인 전시 방법 구안 ····· 50

Ⅳ. 국어문화관 2관 체험 내용 구성 방안 ····· 75
1. 경북 지역 국어문화 체험 내용 선정 ····· 75
2. 경북 지역 국어문화 체험 내용 구성 예시 ····· 76
3. 효율적인 체험 프로그램 구성안 ····· 93

Ⅴ.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 방안 ····· 97
1.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설치 방안 ····· 97
2.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관리 방안 ····· 98

Ⅵ. 결론 및 제언 ····· 101
1. 결론 ····· 101
2. 제언 ····· 103

참고문헌 ····· 104

표 차례

<표 1> 시도교육청별 체험교육기관 현황 ····· 11
<표 2> 전시 주제별 체험 활동 예시 ····· 74
<표 3> 하회별신굿 6마당 체험하기 ····· 90
<표 4> 언어유희 사용 해설 ····· 92
<표 5> 초등학교 5학년용 체험프로그램 예시 ····· 94
<표 6> 중학교 2학년용 체험프로그램 예시 ····· 9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의 지역어를 비롯한 지역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지역의 국어문화 또한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제반 문화의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고유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향유·발전시킴으로써 지켜갈 수 있는 지역마다의 정체성마저 사라져버릴 위기이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언어·사회·문화적으로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아직도 국가가 범국가적으로 강력한 표준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강력한 표준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어를 위축시키고 언어의 자유로운 발달과 다양성을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지역마다의 정체성과 지역 국어문화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문화'란 본론에서 다시 엄밀하게 정의하겠지만 일단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로 보면 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누리는 문화를 말한다. 문화는 국어라는 기반 없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에 문화의 향유와 확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어문화는 어떤 문화를 나타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1] 즉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는 경북 지역 정신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가 훼손되면 경북 지역의 정신문화도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에서는'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가 전국 21개소에 '국어문화원'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2] '국어문화'란 말에는 국어를 그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창출하고 그러한 지향점이 사회 전반에 문화로 형성되는

1) 김대행(2006),「국어생활·국어문화·국어교육」, 국어교육지 119호, 19쪽
2) 김미형(2021), '국어문화'의 인식 정립을 위한 시론, 공공언어학 제6호, 한국공공언어학회, 2쪽

역동적이며 실천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3] 지역마다의 국어문화가 총체적으로 모여 우리나라의 국어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국어문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의 국어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차별성과 획일성을 바탕으로 표준화·획일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의 국어문화를 제대로 알고 향유·보전·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북 지역에는 유지·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어문화가 많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경북 지역의 사투리 문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문학 내용, 경북 지역에서만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 등을 바탕으로 한 한글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내방가사 등 자랑스러운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 유산이 많음에도 각각 흩어져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독자적인 국어문화가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곳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역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어문화라 하더라도 점차 소멸하고 말 것이고 지역마다 소중히 여기던 지역 정신 및 정체성 또한 결국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경북 지역의 경우 경북 정신은 한국문화의 뿌리이자 원류라는 뜻을 담아 '한국정신의 창(窓)'으로 규정하며[4], 이 창을 통해 한국문화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세계문화 또한 내다볼 수 있다는 경북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크다. 경북 정신은 역사적으로 고대에는 화랑정신으로, 중세에는 선비정신으로, 근대에는 호국정신으로, 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정체성이 곧 브랜드가 되는 이 시대에 이러한 경북 정신이 제대로 관리·발전되고 있지 않음으로 하여 현재 경북 사람들은 흔히'보수꼴통'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5]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공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우세한 것이 한쪽으로만 매도되어 지역 전체적으로 보수꼴통이라는 오해를 받는 현실 또한 경북 정신이 제대로 관리

3) 김미형(2021), '국어문화'의 인식 정립을 위한 시론, 공공언어학 제6호, 한국공공언어학회, 25쪽
4) 경북도청·한국국학진흥원 발간자료「경북의 魂 한국정신의 窓」18쪽 참고
5) 경북도청·한국국학진흥원 발간자료「경북의 魂 한국정신의 窓」12쪽 참고

되고 있지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켜켜이 새겨진 경북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경상북도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도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마다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어문화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전시·관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북 지역 국어문화 전시관 또는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있으며 운영에 따른 기초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어문화관 운영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왜 이제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자. 그것은 국어문화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문화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6] 국어는 우리의 모국어이고 어려서부터 늘 써오던 말이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국어로 사고를 해서 우리가 쓰는 국어의 의미를 잘 알고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총합이 사고의 정체성이 되며 그 의미를 나타냄에 있어 국어로 표현하는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이때 국어는 그 자체로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수단이기도 하다. 문화란 세상에 존재하는 정태적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가치적인 것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굳이 애써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이 국어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소외, 갈등, 불화가 모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 국어문화 또한 그냥 두어도 좋은 정태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향유·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동적 실천의 대상이다. 국어문화를 바르게 유지·향유·실천해야 경북 사람은 경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문화를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또 경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경북 정신의 향유와 확산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국어문화관 운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경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

6) 김미형(2021), ‘국어문화’의 인식 정립을 위한 시론, 공공언어학 제6호, 한국공공언어학회, 18쪽

화의 산업화에 협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7] 경북도청의 경우 2021년'한글문화·콘텐츠산업육성민간위원회'를 발족시켜 경북 지역의 한글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어문화 역량 및 콘텐츠를 문화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글사랑 주간을 정하고, 경상북도 한글 비전 선포식, 한글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컨설팅, 옛 한글문자 인식 테이터셋 구축, 경북의 한글 이야기 전시, 경북이 지켜온 한글문화 유산 전시, 한글사랑 서예 작품 전시, 경북 사투리 경연대회, 우리말 사랑 프로그램 제작,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학계 및 한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도청의 행정력만으로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경북의 모든 지자체나 문화단체, 연구단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연구해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교육기관과 함께 경북 지역에 산재한 국어문화 유산을 모아 전시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어문화관을 운영하면서 경북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발맞추어 간다면 경북 지역 문화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근년에 설립한 한국어교육센터, 메이커교육관 및 남부미래교육관 등 2023년 기준 22개의 체험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7개의 체험교육기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험관 증설 예정인 환경교육센터, 수학문화관, 융합진로체험교육관 등도 꼭 필요해서 설립하는 체험교육기관이겠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어문화관도 이에 못지않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북 지역의 자랑스러운 국어문화 유산과 지역어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면 경북 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경북인의 정체성을 알고 경북의 국어문화를 더욱 발전·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진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북의 국어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어문화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본연구의 목적은 경북교육청에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게 하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세부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의 전시 내용을 구안하는 것

7) 안동데일리 2021.9.16.자 지면, 「경북 속 한글문화의 산업화 육성을 위해 첫 삽을 뜨다」에서 인용

이다. 둘째는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의 체험 내용을 구안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의 운영 관리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 장에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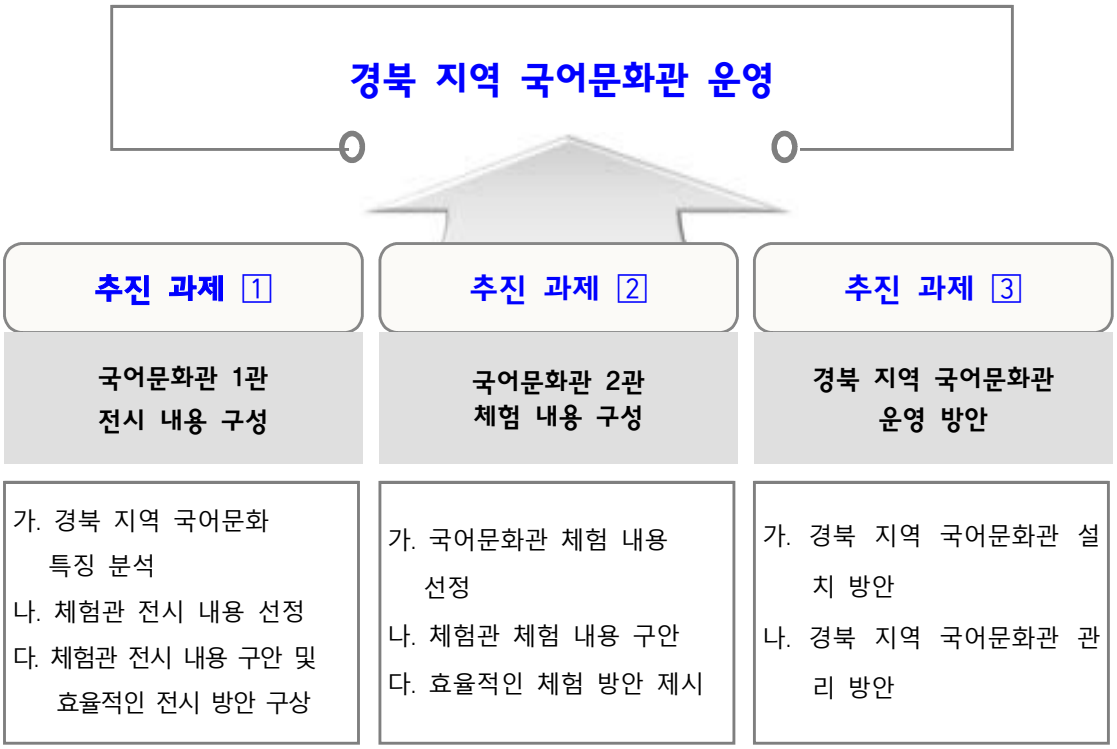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은 우리의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어문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문화적 가치로서의 국어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국어문화관 운영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체험관 현황에 대하여 분석해볼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로 어떤 전시관 또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체험관 운영이 부족한지 그 현황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어문화 관련 온라인 사이트들의 분석을 통해 국어문화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각 온라인 사이트의 역할과 장점들을 알아본 후 지역별로 국어문화관을 운영해야 하는 의의에 관하여 정리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첫째 과제는 국어문화관 1관의 전시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을 생각해볼 것이다.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을 알아야 경북의 국어문화를 대표하여 전시할 수 있는 전시 내용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된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전시 내용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전시 내용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전시 내용 구안과 효율적인 전시 방법 및 구성 방안을 생각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둘째 과제는 국어문화관 2관의 체험 내용 구성 방안이다.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한자리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 체험 내용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상 학생들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체험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것이다. 또한 체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 높게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예시를 만들어 제시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셋째 과제는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 방안이다. 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 것이

다. 기존 다른 체험관에서 활용이 부족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상대적으로 용도가 없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 효과적인 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또한 체험관 관리 방안으로 인력 활용 및 예산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체험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통해 경북교육청에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며 연구 내용을 과제별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 내용 도식화>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북교육청에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운영하도록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실험연구, 조사연구, 관찰연구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국어문화 보전 및 유지 실태 파악, 발전 및 확산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체험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체험관 운영에 있어 예견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논의해보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성과에 의해 도교육청에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본 연구는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국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와 지난 시대의 국어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 상황에 맞게 우리 사회의 의미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자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국어문화 실천의 당위성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함에 있어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어문화관을 운영한다면 국어문화 실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화관의 전시 내용과 체험 내용을 구안하는 것은 학계에서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전시관을 꾸미는 큐레이터의 영역일 수 있다. 실제 국어문화관을 꾸미게 될 때도 비전문가가 어설프게 맡아서 하기보다는 공모를 통해 학계 연구단체와 큐레이터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행된 연구가 많이 없어서 본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전시관을 구축할 때도 사전에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공모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구축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처음부터 함께 연구하고 구안하도록 해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체험관의 전시 내용을 선정해 볼 것이고, 또 선정된 전시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논의해볼 것이다. 체험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체험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 또 그 체험 내용을 어떻게 체험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국어문화관의 전시와 체험 내용의 예시안들을 만들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려면 구축과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관리 인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몇몇 체험관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에 있어 기초가 될만한 부분들을 제시해 볼 것이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예산과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체험관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험관 운영의 기초가 될만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검증은 체험관 설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비슷한 체험관을 찾아 전문 큐레이터들로부터도 자문을 얻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진이 실제 경북국어문화관 구축을 위한 TF팀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국어문화관이 완전히 구축·운영될 때까지 지속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둔다.

Ⅱ. 국어문화 인식 및 국어문화관 관련 현황 분석

1.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부에서는 국어교육의 총괄 목표로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설정하고 있다.[8] 여기에 쓰인 국어문화를 향유한다는 것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가? 여기에 쓰인 '국어문화'란 '국어가 만들어내는 문화, 즉 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누리는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국어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의미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대입하여 구체적으로 국어문화를 표현한다면 '의미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인식의 공유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9]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우수하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 문화란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행동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향유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장실은 사실 인간 본능적인 생리 현상과 관련된 장소로 배설물은 더러우니 최대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하자고 약속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훌륭해!'와 같은 칭찬이 가능할 것이다. 화장실 문화라고 할 때 단순히 화장실 설치의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사용에 담긴 어떤 사회 공통의 인식과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화장실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노력하는 인식의 공유와 실천이 있어야 화장실 문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국어문화에 대입하여 표현하면 어느 사회에 국어

8)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각 2쪽
9) 김미형(2021), '국어문화'의 인식 정립을 위한 시론, 공공언어학 제6호. 한국공공언어학회, 43쪽

문화를 잘 향유하고 있다는 말은 '의미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인식의 공유와 실천'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될 것이다.

국어문화를 잘 갖추어 향유하고 확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관계성을 경험하게 되며, 정확한 사고 능력도 향상될 것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더 잘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어떤 생각이나 가치에 대해 적절하고 알맞은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는 것을 국어문화라 말할 수 있다. 국어문화에 관한 인식이 생기면 우리 사회의 소외, 갈등, 불화가 깊이 생각해보면 모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이러한 국어의 허술한 사용에 대해 반성하며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잘 인지하며 국어를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더 나은 국어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국어문화란 그냥 쓰는 대로 두어도 좋은 정태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향유·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동적인 실천의 대상이다. 문화란 다수의 사람이 함께 누리는 것인데 국어문화란 언어적 표현으로 가치가 드러나고 향기가 퍼지게 된다. 언어 표현을 통해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지향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국어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의 지향점이 있게 되고, 이러한 공통의 지향점을 사회적으로 잘 인식할 때 경북 지역이라면 경북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을, 나라 전체로 보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10] 이런 뜻에서 <국어기본법>에서'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강조하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어문화의 향유와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문화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국어문화의 범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학, 화법 등 교육의 관점, 예술성과 일상성의 관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매체의 종류에 따른 설정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위주로 보는 범주화는 역동적 실천을 위한 국어문화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분류법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에서 사람들이 국어문화에서 어떤 대상을 역동적인 실천, 향

10) 김대행(2006),「국어생활·국어문화·국어교육」, 국어교육지 119호, 21쪽

유, 확산의 가치로 보고 있는가 하는 실제 사례를 범주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는 청소년 세대의 국어문화, 어른 세대의 국어문화, 대중매체의 국어문화 등을 하위 범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실제 국어문화를 모아서 전시하고자 할 때 이런 하위 범주 중심으로 국어문화의 여러 면모를 살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설치하기 위해 먼저 국어문화에 관해 어떤 인식을 해야 할지를 알아보았으며, 바람직한 국어문화를 향유·확산하고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역동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점점 세대 간에 드러나는 언어 차가 커지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 현상이 심각해지고, 경북 사람들의 정체성이 보수 일변도로만 오해받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향유·확산하기 위한 역동적 실천의 첫걸음으로 국어문화관을 설치하여 지속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도교육청의 교육적 역할에 충실한 것이며 구체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국어문화 실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체험교육기관 현황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체험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속기관 현황을 보면 교육청별로 직속기관의 직제가 다르기에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도 동일한 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속기관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연수원이 있고 또 다양한 이름으로 교육연구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문화회관 또는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기능에 따라 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유아교육원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이 외에 체험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다음은 시도교육청별 특색 있는 체험교육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직속기관 수는 홈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색 있는 체험교육기관으로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명칭을 가진 체험교육기관을 기록하였다.

< 표1 > 시도교육청별 체험교육기관 운영 현황

교육청	직속기관 수	특색있는 체험교육기관

서울교육청	12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과학전시관
부산교육청	9	어린이창의교육관, 학생인성교육원
대구교육청	10	대구교육박물관, 학생문화센터
인천교육청	10	인천난정**평화**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광주교육청	10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전교육청	9	한밭교육박물관
울산교육청	8	수학문화관, 울산과학관
세종교육청	4	**안전체험교육원**, SW교육체험센터
경기교육청	15	**안전교육관**, **평화**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강원교육청	15	사임당교육원, **평화**교육원
충북교육청	11	자연과학교육원
충남교육청	13	과학교육원, 충무교육원, **안전수련원**
전북교육청	13	과학교육원, 해양수련원
전남교육청	13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안전체험학습장**, 자연탐구원
경남교육청	15	예술교육원 해봄,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
제주교육청	7	제주교육박물관, 국제교육원, 탐라교육원
경북교육청	7	화랑교육원, **안전체험관**, 수학체험센터, 인공지능교육센터

먼저 안전체험교육기관을 설치한 교육청은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경북교육청까지 여섯 군데였다. 체험교육기관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대구, 대전, 제주교육청까지 세 군데였다. 평화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경기, 인천, 강원교육청이 있었고, 수학문화관을 설치하고 있는 곳도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두 곳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자연탐구원을 설치하여 생태문화환경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남교육청에서도 우포생태교육원을 설치하고 있었다. 경남교육청은 유일하게 예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산교육청은 학생인성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세종교육청에는 SW교육체험센터가 있고, 경북교육청에는 인공지능교육센터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어전문체험교육기관은 있지만 국어문화 체험 교육기관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경북교육청 체험교육기관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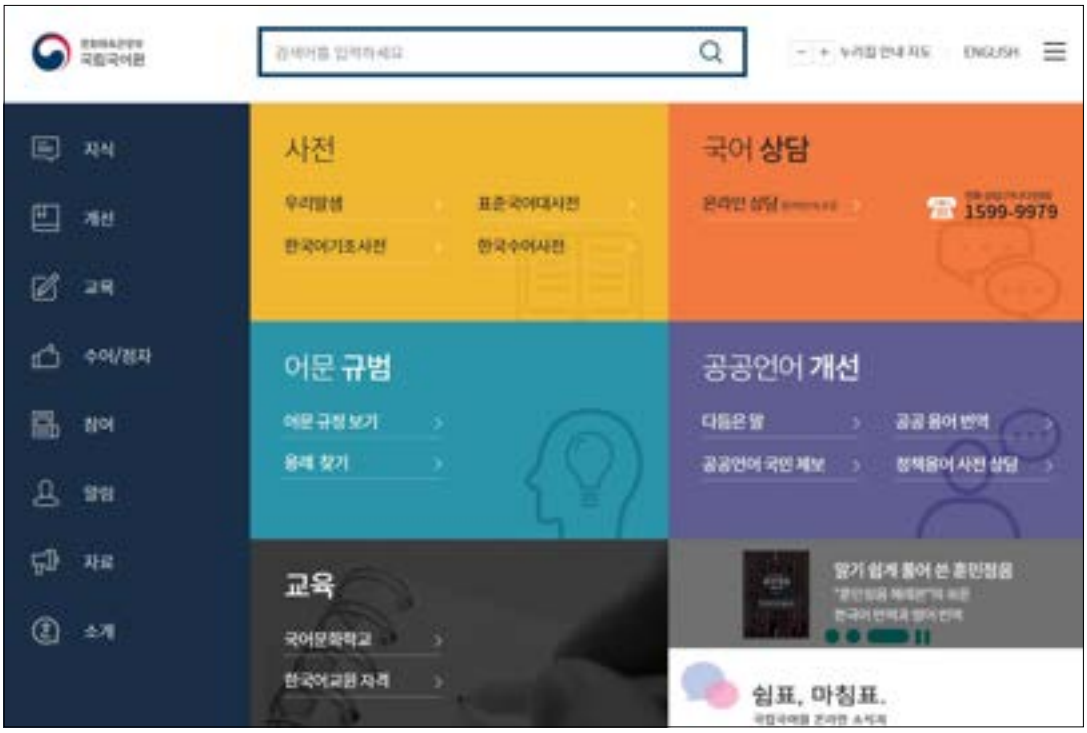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의 경우 25개의 체험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있어서 특별히 제시하여 보았다. 경북교육청은 안전체험관을 비롯하여 수학체험센터, 인공지능교육센터, 메이커교육관, 발명체험교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3년 올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를 개관하였고, 2028년까지 환경교육센터, 직업교육센터, 해양체험교육관, 독도교육원 등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기관을 다 살펴보아도 본 연구에서 주제로 하는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경북교육청에서 올해 설치한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유일하게 국어 관련 교육기관이었는데 이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집중 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대구교육박물관과 한밭교육박물관이 다양한 교육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그 중 국어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역별 국어문화를 제대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체험 교육기관은 없었다. 지역별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이제까지 국어문화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별 국어문화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바람직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국어문화 체험 관련 현황

국어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립국어원이나 국립한글박물관, 국어문화학교 같은 곳이 있어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도 바람직한 국어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또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21곳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사단법인 형태로 연합체를 이룬 국어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가 있으며, 국어문화원 가운데 별도의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국어문화운동본부도 있다. 또한 한글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같은 곳도 있으며, 한국어와 한글문화를 통해 국제교류를 하는 세종학당재단이 있고, 세종대왕의 업적과 문화를 선양하고자 하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이 대표적으로 우리 국어문화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라 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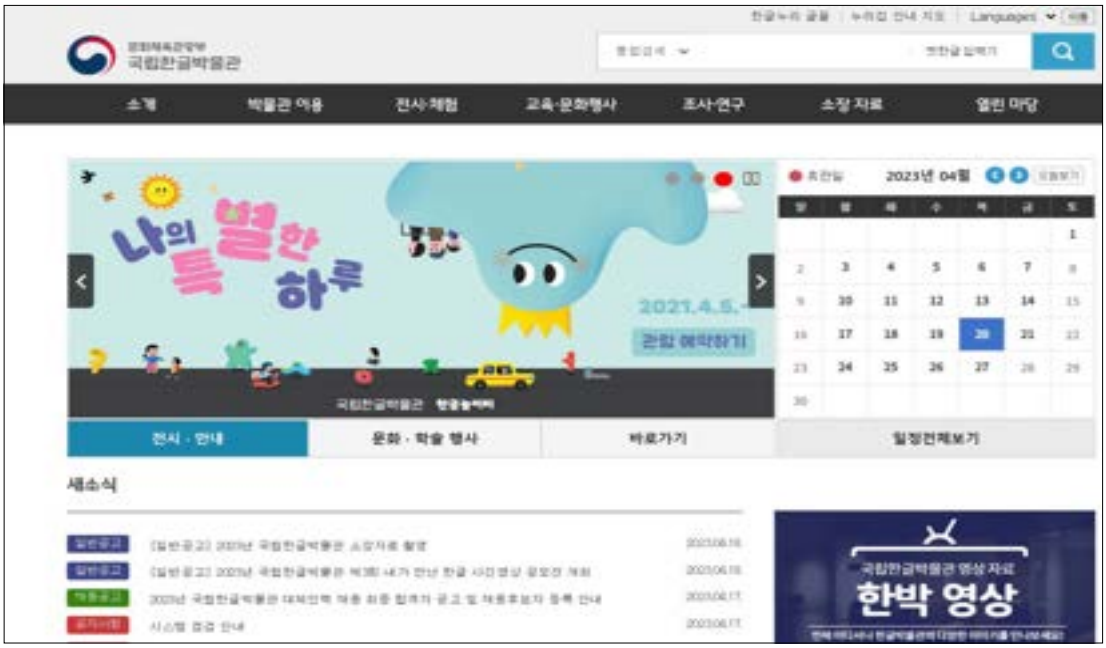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들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어 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어문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곳이다. 국립국어원은 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표준어 제정 기관인 셈이다. 1992년 1월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1999년 10월부터 표준국어대사전 상, 중, 하 3권을 발간했다. 2004년 11월 11일에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10월에는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립국어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어교육, 번역, 국어 정보화 사업 등 국어문화와 관련하여 여러 방대하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일이라면 거의 다 국립국어원이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어생활 종합상담실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 문법이 맞는지 질문하면 판명하고 조언해주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2)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문을 열었고 온라인으로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문화의 기초이자 그 자체로 우리 문화의 정수인 한글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시·교육·행사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에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홈페이지도 잘 홍보되고 있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운영 목표는 우리글인 한글을 통해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표현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여러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세계문화의 창의성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또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어와 한글을 더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전파를 위해 전 세계와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2층 상설전시관에서는‘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이라는 주제로 상설 전시를 하고 있으며, 3층 기획전시 공간은 한글과 세계 문자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기획해서 전시하며, 3층 한글놀이터는 6세부터 9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한글을 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 국어문화학교

<국어문화학교 홈페이지>

국어문화학교는 국어문화라는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올바른 국어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199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어문화학교는 전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집합 교육으로 운영되는 국어전문교육과정과 특별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한글날부터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개통하여 국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문화학교에서는 한글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 국어 관련 강좌를 무료로 국민 누구나 연중 수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나 일반 국민이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의 다양한 온라인 국어 강좌를 통해 어문 규범과 공문서 작성법을 비롯한 공공언어, 국어 지식 등의 국어 사용 능력을 좀 더 수월하게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4)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문화운동본부 홈페이지>

국어문화운동본부는 1998년에 바른말 쓰기와 언어 순화를 위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강좌와 사업을 통한 바른말 쓰기와 언어 순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언어 정책 개선, 조사 및 연구, 문장 교정 및 교열, 공공언어 교육 및 개선에 공헌하며, 방송과 시민 강좌를 통해 바람직한 국어 생활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05년 8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문화원 지정 제3호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으로 선정되어 온·오프라인에서 바른말, 우리말 사용에 더욱 힘쓰고 있다.

언어 정책 개선을 위한 언어 순화 정책, 외국어 번역 정책, 어문 규범 개선, 한글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하며,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는 공무원의 언어 실태, 정치인의 언어 실태, 언론인의 언어 실태, 사회 언어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또 공문서, 홍보문, 안내문, 설명문, 기타 자료의 문장 교정 및 교열과 언어 비평, 공공언어 강좌, 문장 강좌를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었다. 또한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교육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공공언어 개선을 추진하고, 연간 2회 국어문장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시민 대상 강좌 개설, 글쓰기 신문, 지속적인 국어 관련 기사를 통해 올바른 국어 생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5) 국어문화원연합회

<국어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고 <국어기본법> 제24조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인 국어 상담사에게 국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되었는데 현재 21곳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전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높이고 국어의 위상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언어에 대한 상담, 교육, 개선 활동 등에 큰 노력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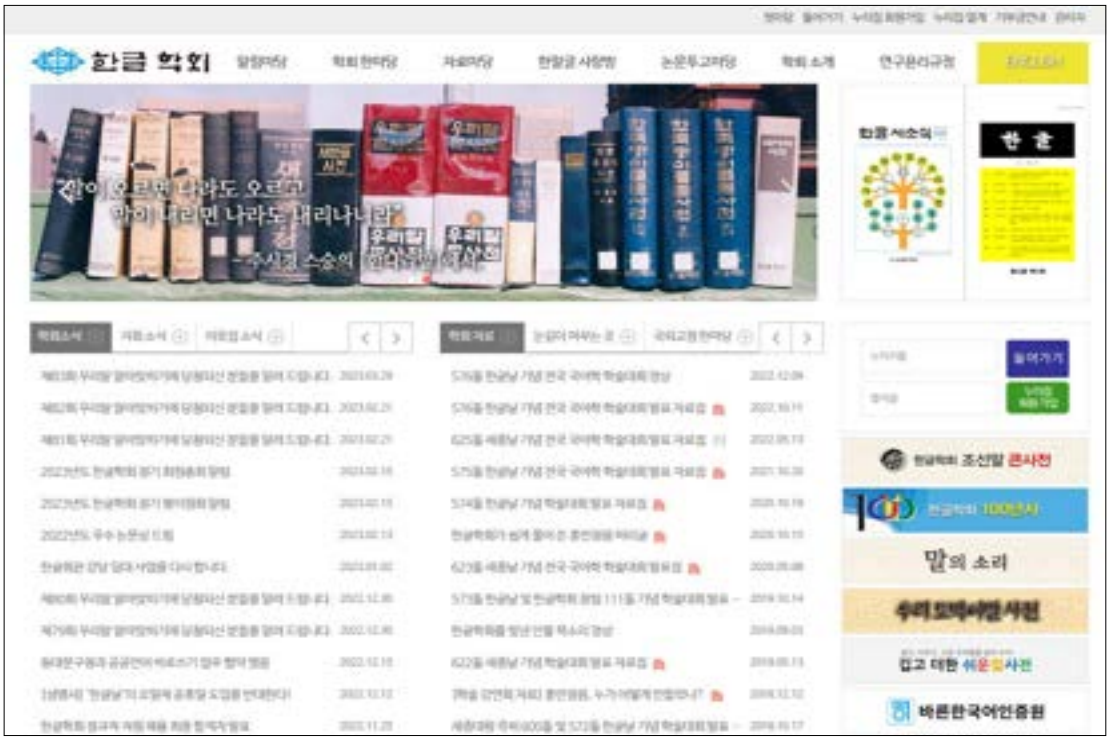
국어문화원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7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는데,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문화원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힘쓰며, 온라인사이트에서도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6)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연대 홈페이지>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부터 우리말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말글살이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일구고자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운동을 펼쳐 20년 만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만든 바 있으며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로 만들어진 공공언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쉬운 말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국어기본법>을 지키게끔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글문화 토론회'를 열고 있으며, 우리말글에 대해 쉽게 배우는 '알음알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7) 한글학회



<한글학회 홈페이지>

1908년 8월 31일 주시경과 김정진 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의 문맹을 깨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자 세운 민족학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학술단체이다. 창립 초기부터 한글학회의 활동은 우리 말글의 수호와 연구 그리고 보급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에 목표를 두었다. 광복 후에는 한글문화와 국어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꾸준히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한글문화를 보급하고, 국내외의 지회와 부설기관을 통해 우리 말글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글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2000년부터 '외국인 한국어 발표 대회'와 '우리 말글 지킴이 위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아름다운 우리 말 가게 이름 선정', 2005년부터는 '휴대전화 쪽글(문자) 자랑', 2012년부터는 '한글 손글씨 공모전' 등과 같은 우리 말글 진흥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 1932년 창간한 기관지 <한글>은 2020년까지 통권 327호가 발행되었으며, 이외에도 <문학 한글>, <교육 한글>, <한힌샘 주시경 연구>, <한글 새소식> 등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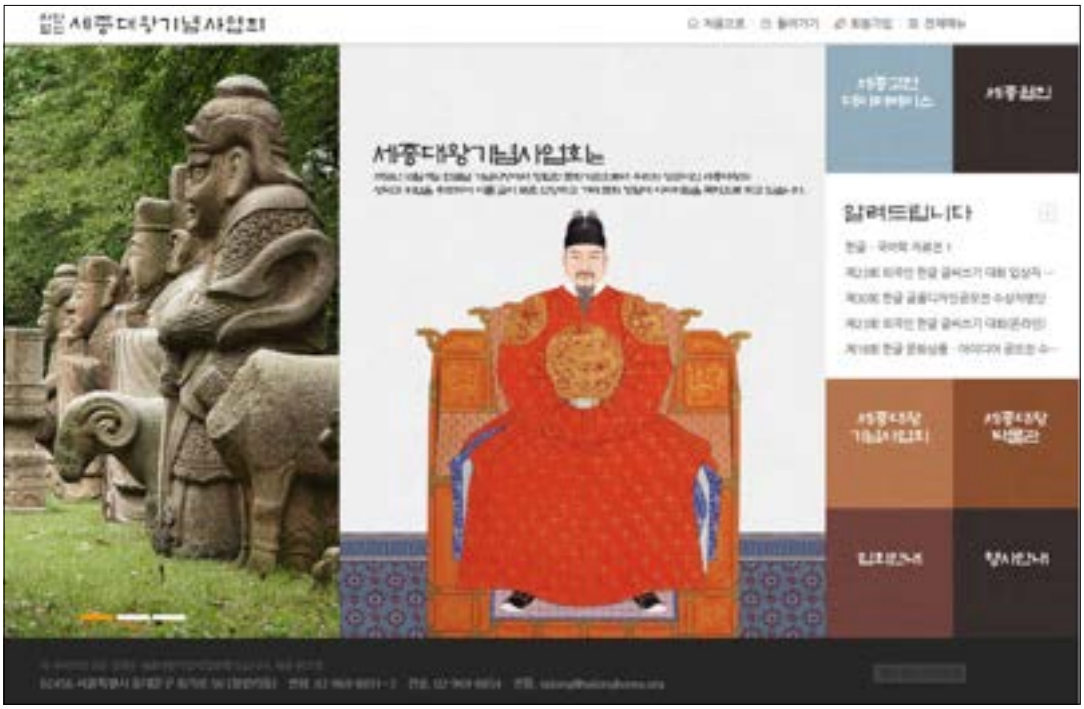
8)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사업은 한국어교육·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홈페이지 '누리-세종학당'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의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운영,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 인력 파견, 그 밖에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한국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문화교류 기관이다.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56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에서 창립해 1957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문화기관으로서 창립 57년 동안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 선양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세종대왕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세종대왕기념탑의 건립과 관리,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및 국학자료의 편찬, 간행, 세종대왕의 유물 및 유적의 수집과 보존, 우리 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 한글기계화와 연구, 국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 고전 국역 간행 등의 사업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 국어문화를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세종대왕의 유물 및 유적의 수집과 보존,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및 국학자료의 편찬과 간행, 우리 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 한글 기계화와 연구, 국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세종대왕의 자주, 민본, 과학 정신을 재조명하여 우리 국민과 인류에게 세종대왕의 정신을 알게 하였다. 또한 세종대왕기념관, 한글박물관, 한글날과 세종날을 기념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문화를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의 의의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별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특히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어문화 확산을 통한 효과와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별 국어문화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국어문화를 고양하고 지역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언어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나라 전체의 국어문화를 진흥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전시하고 학생들이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여 경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경북인의 정체성 인식을 도약에 필요한 원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경북에서 찾도록 할 수 있다.

3) 국어문화관을 중심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경북 지역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언어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세대별 언어 조사를 수행하여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기초 언어 자료를 마련하는 등으로 국어문화를 더 체계적으로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다.

4)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경북 속의 한글문화 원형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산업화로 육성하도록 하고, 경북 사투리 경연대회 개최, 제3의 훈민정음해례본 찾기 운동, 우리말 큰 잔치, 한글 간판 보급 활동 등의 행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글 문화산업 활성화(Boom-up)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5)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글을 지켜온 경북이 한글 활용 신성장 AI 산업(한글 말뭉치 사업, SUPER-AI 센터 조성)을 경북도청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앞서 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류 확산의 또 다른 동력이 되도록 한글의 독창적인 과학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선양할 수 있다.

6) 지역별 국어문화의 전시를 위해 지역별 국어 문화유산을 모아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어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화 이전에는 다소 제한적이었던 국어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11)]

7)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의 지역별 국어문화 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기초지자체별로 국어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12)]

8) 국어문화관을 통해 국어문화를 활성화하면서 <국어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직책인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9) 지역어의 언어 변이와 변화를 정리하면서 표준어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성·획일성·경직성·보수성을 가진 기존 표준어 정책을 반성함으로써 전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언어문화의 정립을 위한 언어 정책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0) 경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한글문헌 전수조사[13)]에 함께 협조하며 옛한글 문화총서를 함께 발간하는 등으로 경북의 국어 문화유산들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동영상, 이미지 자료가 연동되는 하이퍼텍스트로 가공하여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1)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내방가사'등 의미 있는 경북의 국어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독자적인 국어문화를 꽃피워 온 경북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인정받고 계승하도록 할 수 있다.

12) 경북 지역의 한글 콘텐츠의 문화관광 산업화를 함께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한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국어문화관 운영을 통해 도청과 대학,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3) 국어문화관의 전시 내용을 통해 경상북도 정신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운동정신을 통해 경북인의 올곧음을 보여주며 경북 사람들이 보수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경북 정신에서 찾을 수 있도록 경북의 아우름 정신을 드높일 수 있다.

---

11) 이가원(2019),「문화유산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283쪽
12) 김덕호(2020),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현황과 내용 분석, <우리말글> 제84집, 우리말글학회, 16쪽
13) 투데이코리아 2022. 10. 8.자 지면,「'한글의 본향 경북' 훈민정음뿌리사업단, 한글 연구사업 이어가」참고

Ⅲ. 국어문화관 1관 전시 내용 구성 방안

1.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

역사적으로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는 통일신라였고, 당시 수도였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의 말과 문화는 우리나라 국어문화의 원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경북 지역은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으로 경북의 정신을 이어오면서 경북인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켜왔다. 즉 경북 지역은 전통을 잘 보전해옴으로써 우리 국어문화의 원류를 형성해 온 것이다. 특히 경북 신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미래 천년을 내다보며 경북인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한국 정신문화에 관한 가치는 오늘날 '민족정신'이 피폐하여 가는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에게 삶의 활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서 인정하고 등록해준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경북인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정신문화를 우리 삶에 파급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경북 지역의 정신문화가 가장 오롯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구체적인 면모와 그 특징들을 알아보자.

먼저 경북 지역은 한글문화가 발전하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경북 지역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바람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 <훈민정음해례본>은 경북 안동에서 보존되어 오다가 1940년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시대 대표 학자인 농암 이현보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은 가사와 시조를 한글로 지었다. 경북의 여성들은 한글로 <내방가사>를 지어 한글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내방가사는 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한글로 쓰인 <월인석보>는 안동에 있는 광흥사에서 간행되었고, 숱한 유교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어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바 있다. 이처럼 경북 지역은 한글 보급에 날개를 달아주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는 8,000여 점에 달하는 한글 고문서,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으며,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경북은 한글 보급의 중심지이며, 독자적인 한글문화를 꽃피운 곳으로 경북도와 힘을 합쳐 한글의 우수성과 경북 속의 한글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14] 이렇게 경북 지역은 한글문화의 중심지로서 국어문화의 원류를 형성한 곳이다.

현재 경상북도는 한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1월 한국국학진흥원 내에 <훈민정음뿌리사업단>을 발족한 바 있다. 훈민정음뿌리사업단은 한글을 보존하고 발전시킨 경상북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경북도의 옛한글 연구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먼저 대학, 학술기관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경북도에 소장된 옛한글문헌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 단위에서 옛한글 문헌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경북도가 최초이다. 도내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활용한 옛한글 문화총서(100권)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참신한 시각을 지닌 옛한글 소장학자 100명을 모아 조선시대 한글문화 전반과 경북도 옛한글의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간행한 총서를 동영상, 이미지 자료가 연동되는 하이퍼텍스트로 재가공해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북 지역에는 이렇게 국어 문화유산들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에 되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한글문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나라 전체 국어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5]

경북은 한글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국어 관련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민족문화와 역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국어 문화유산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16] 경상감영에서는 한문 문헌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바 있으며, 최초의 한글번역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공찬전>도 상주 쾌재정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서민들이 주도했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음> 등도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는 우리 문화의 원류를 가장 잘 보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일은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14) 투데이코리아 2022. 10. 8.자 지면, 「'한글의 본향 경북' 훈민정음뿌리사업단, 한글 연구사업 이어가」 참고
15) 문화체육관광부 발간(202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210쪽
16) 이가원(2019), 「문화유산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276쪽

2. 경북 지역 국어문화 전시 내용 선정

경북 지역 국어문화 전시 내용은 경북 전체의 국어문화 관련 자료들 가운데 경북 지역 국어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어문화들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수히 많은 경북 지역 국어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선정하여 보여주느냐에 따라 국어문화 체험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경북의 국어문화를 제대로 구현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선정 작업은 국어문화관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선정할 것은 경북 지역 지역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들이다. 다양한 지역별 사투리들은 과거와 현재의 국어생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경북이 전국 유일 훈민정음해례본의 발견지이기 때문에 간송본과 상주본 등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여 전시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한글문화산업까지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유형의 옛 한글 관련 자료를 전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국어문화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요 전시물로는 다음과 같은 유물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부가(1549년), 도산십이곡(1565년), 원이엄마편지(1586년), 음식디미방(1670년), 온주법(1700년), 시의전서(19세기말)와 상주 쾌재정에서 작성된 최초의 한글번역소설인 <설공찬전> 등을 주제별로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중인 내방가사에 대해 전시할 필요가 있다. 내방가사는 여성들의 한글의 사용 영역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여 왔으며, 한글로 필사·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기록문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17]

다섯 번째로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간경도감 자료들에 대해서도 조명이 필요하다. 불경언해서 <월인석보>는 안동에 있는 광흥사에서 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간경도감 자료가 경북 지역에서 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청단놀음과 같은 경북 지역의 탈춤에 나타나는 국어문화에 대해서도 조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위 여섯 가지로 전시 테마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시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17) 김윤희 외(2020),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내방가사에 담긴 여성들의 삶과 한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330쪽

3. 경북 지역 국어문화 전시 내용 정리

1) 경북 지역 지역어의 특성

경상북도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방언 중에서도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한 임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여 동남 방언 또는 영남 방언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용어가 아니며 다른 지역의 방언과 구분되는 잠정적으로 경상북도 방언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림이 없는 여러 가지 특질을 갖고 있다. 경북의 방언은 한반도에서의 첫 통일국가인 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이기에 우리말의 뿌리가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첫 표준어 역할을 한 경주 중심의 경상도 방언이 우리말의 원류가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의 어원을 찾아보면 경상도 방언에서 온 경우를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북 지역의 사투리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경상북도 방언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경상북도 방언은 의문형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에 따라 대개 3가지 말씨로 하위 구분을 한다. 첫째,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동부 지역에서는 '하니껴체'를 쓴다. 예를 들어 표준어로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를 이 지역에서는 "아제요, 어디 가니껴?"라고 한다. 둘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남동부 지역에서는 '하능교체'를 쓴다. 예를 들어 표준어의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를 이 지역에서는 "아제, 어디 가능교?"라고 한다. 셋째, 상주·김천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에서는 '해여체'를 쓴다. 예를 들어 표준어의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를 이 지역에서는 "아제, 어디 가여?"라고 한다. 아마 경상북도 바깥의 외지 사람들은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이와 같은 인사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안동 사람인지, 경주 사람인지, 김천 사람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법상의 특징 외에도 음운적인 특징과 언어 축약 현상도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 방언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방언 어휘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말투와 억양의 경우에도 경북 안에서도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 경북 북부 내륙은 문장의 앞부분에 강세가 있고 끝은 내려간다. 말의 시작이 옆구리 찌르듯 툭 던져지고, 끝은 가래떡 썰리듯 뚝 끊긴다. 말에 된소리가 자주 섞인다. 낙동강 서쪽은

예부터 타지와 왕래가 잦아 말이 유한 편이며, 조곤조곤하고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말의 시작은 부드러우나, 말이 이어질수록 성조가 높아지고 억양이 세지는 경향이 짙다. 낙동강 남쪽은 주로 경북 내륙 사투리와 공통점이 많다. 차이점은 거센 소리를 자주 사용해서 같은 문장을 말해도 말이 더 딱딱하게 들리는 점과 이, 으, 어 등의 단어로 말을 부드럽게 끝내는 등의 특징이 있다. 특히 경상북도 사람들의 방언은 상황 의존적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런 특징으로 하여 경상도 사람들의 말씨는 논리성이 매우 떨어지며 조리가 없어 보인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수가 적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거나 방송 인터뷰에 나오면 왠지 어색해 보이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경상도 방언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타지에서 경상도 사람을 만나 경상도 방언으로 소통할 때 경상도 사람끼리 특유의 정서로 인해 반가움이 배가된다고 한다. 모든 방언에 이러한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경북 방언의 상황 의존적 언어 소통의 특성은 경북 사람끼리 말을 통해 경북 지역의 정서를 공유하도록 하여 더 큰 유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경북 지역의 지역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전시를 함으로써 경북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하여 경북 지역 사투리의 특성을 전시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시물이 되는 것이다.

2) 전국 유일의 훈민정음해례본 발견지(간송본, 상주본)

훈민정음해례본은 국보 제70호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글 즉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훈민정음은 그 자체로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며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다만 발견된 책에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해례하고 있어 이 책을 <훈민정음> 또는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1940년에 와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한글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국문학자(한글학자)에게는 당연히 보물 중의 보물이고 세계 언어학자들에게도 극히 소중한 자료이다. 대규모의 언중이 실제 사용 중인 문자 시스템에 대해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직접 해설을 달아놓은 자료는 전 세계에 오직 <훈민정음해례본>뿐이다. 2019년 현재 알려진 판본은 안동본(간송본)과 상주본 단둘뿐이다. 소재가 알려진 것은 안동본(간송본)뿐이나 안동본(간송본)을 통해 영인본이 제작되어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제작 원리 내용(해례)이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례본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의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추측이 난무했다. 애초에 많이 인쇄하지 않았던 건지 조선시대부터 이미 해례본은 희귀했는데 그 유명한 <훈몽자회>를 쓴 최세진 역시 해례본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인용만 하고 있다. 이덕무가 쓴 백과사전 <청장관전서>에는 '세속에 전하기를 세종이 변소에서 문살을 보다 깨닫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실려있어 와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설이 독일인을 거쳐 일본인들에게까지 전해져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한국 고유의 창살 문양에서 유래되어 창제되었다는 설이 일반화되기도 했다. 이런저런 어중이떠중이식 설이 나돌던 와중에 1940년에 해례본이 발견되며 한글이 계통적으로 독립적인 동시에 당시 최고 수준의 언어학 및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한글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해례본의 발견으로 인해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어렵고 난해해서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한글 원리에 대한 해석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자음 글자의 경우 혀나 입술 같은 발성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고 쓰여 있지만 모음 글자의 경우 성리학 이론과 관련된 천지인을 가져와서 만들고 조합한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해례본에는 한글 창제 원리의 소개 외에도 훈민정음이 정확히 언제 반포됐는지도 표기가 돼 있어서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안동본은 최초로 발견된 해례본이다. 1940년대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후 간송 전형필이 입수하여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이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훈민정음해례본>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훈민정음해례본>이라는 이름보단 <훈민정음> 원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상주에서 두 번째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에는 구별을 위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 안동본 또는 소유자의 호를 따서 간송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판본 중에서 간행 시기가 가장 이른 판본이고 내용상 원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어학계에서는 이를 원본이라 하지 않고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정확하게 부른다.

오랜 세월 해례본은 단 한 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2008년 7월에 경북 상주에서 간송미술관의 간본과 같은 판본이 발견되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사는 고서 수집가인 배익기 씨가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발견하였다며 이

를 안동 MBC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지를 따서 이를 상주본이라 부른다. 상주본의 경우 도굴꾼이었던 서모 씨가 1999년 안동 광흥사의 대웅전 나한상 토불들을 부수고 훔친 복장 유물이라는 증언을 하였고, 2013년 말에 실제로 안동 광흥사에서 조선 세조 시기에 복장한 다수의 관찬 언해본 서적이 발견되면서 이 당시 편찬된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간송본 또한 그 판본이 완전히 똑같고 같은 안동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상주본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 복장했던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상으로 확인된 상주본에는 간송본에는 없는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책 귀퉁이에 남아있어, 학술 가치가 높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3) 다양한 유형의 옛 한글 관련 자료

- 어부가(1549년)

어부가는 농암 이현보(李賢輔)의 문집인 ≪농암집(聾巖集)≫ 가사편(歌詞篇)에 수록되어 있다. <효빈가(效嚬歌)>와 <농암가(聾巖歌)>, <생일가(生日歌)>가 서문을 붙여서 앞에 있고, 뒤에는 유명한 <어부장가(漁父長歌)> 9수와 <어부단가(漁父短歌)> 5수가 실려있다. 이들은 당대의 유행 곡조였던 시조(時調)로 가창되었던 노랫말이다. ≪농암집≫에서 이를 가사(歌詞)라고 이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는 산수(山水)를 특히 좋아하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산림을 헤매고 산을 오르며 분강(汾江)에 배를 띄우고 당대의 명사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어부가> 양편(兩篇)은 이 같은 그의 강호 생활을 솔직하게 반영한 노랫말이다. <어부가> 양편의 완성 연대는 그의 나이 83세인 1549년으로 만년의 작품이다. 농암의 어부장가는 농암과 농암 주변의 인물들이 분강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하면서 함께 불렀던 노랫말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부가>는 퇴계 이황이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어부가>가 농암 이현보 이후 남인계의 대표적 가요로 자리잡은 원인이 되었다. 16세기 이후 남인계의 대표적 가요는 <어부가>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이고 서인계의 주된 가요는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였다.

<어부가>는 세속을 벗어나 부귀공명 등의 일들을 뜬구름처럼 인식하는 물외한적(物外閒適)이 주된 모티프인데 이는 자칫 세간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고산 윤선도도 <어부가> 계열인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와 관련된 강호생활에 대해 비방을 받은 바 있다. 농암도 이 같은 현실을 의식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는 <어부단가> 종장에서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

달 니즌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라고 노래했다. 강호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린 <어부가>에서 왕이 계시는 북궐을 언급하였다. 이는 몸은 비록 강호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귀거래(歸去來) 풍조와 어울려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바가 되었다. 향리에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향유한 사대부들이 벼슬길에서 얼마만큼의 명예를 얻은 후 고향으로 돌아와 마치 신선 같은 강호생활을 누리는 것이 당대의 팽배한 풍조였는데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어부가>류의 작품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퇴계는 <서어부가후(書漁父歌後)>에서 <어부가>를 자신도 소시부터 좋아했다고 밝히고 <쌍화점(雙花店)> 등의 당시 유행 음악인 속요와 대비시켜 진성(眞聲)이라고 평했다. 퇴계가 <어부가>를 강호의 진락(眞樂)과 관련된 좋은 음악(眞聲)으로 단정한 것은 <어부가>류가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암 이현보는 <어부가>를 쓴 후 이를 ≪농암야록(聾巖野錄)≫으로 명명했다. 농암이 어부장가와 어부단가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은 것은 음영과 창을 함께 중시하여 이를 겸비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어부가>의 미의식, 즉 품격은 '한적(閒適)'이다. 티끌세상에서 벗어나 부귀공명 등을 초개처럼 여기는 물외진락(物外眞樂)을 형상한 작품으로 1549년 창작된 후 문학사적으로 16세기 이후 대표적인 사대부가요로 평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어부가 [漁父歌] (네이버고전문학사전, 2004. 2. 25., 권영민)

- 도산십이곡(1565년)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1565년(명종 20)에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현재 이황의 친필로 제작된 육필본이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퇴계 이황이 명종 때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구영언>에도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로 전6곡, 후6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는 언지(言志), 후자는 언학(言學)으로 부른다. 고산구곡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시조 중 하나이며, 조선조 시조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전6곡은 퇴계 이황이 자연에 은거한 상황에서 각종 심정의 감흥을 읊은 것이고, 후6곡은 학문과 수양을 통한 성정(性情)의 순정(醇正)을 읊은 것이다.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황(1565년)

제1곡

이런들 엇더하며 뎌런들 엇더하료.
초야우생(草野遇生)이 이러타 엇더하료.
하말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텨 므슴하료.

제2곡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가뇌.
이 듕에 바라난 일은 허므리나 업고쟈.

제3곡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眞實)로 거즛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한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삼할가.

제4곡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됴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됴해.
이 듕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몯하얘.

제5곡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애 유수(流水)ㅣ로다.
떼 만흔 갈며기난 오명가명 하거든,
엇더타 교교 백구(皎皎白駒)난 멀리 마음 하는고.

제6곡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애 월만대(月灣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 가지라.

하믈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아 어늬 그지 이슬고.

제7곡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蕭灑)한듸,
만권 생애(萬券生涯)로 낙사(樂事)ㅣ 무궁(無窮)하얘라.
이 듕에 왕래 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할고.

제8곡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하야도 농자(聾者)는 몯 듣나니.
백일(白日)이 중천(中天)하야도 고자(瞽者)는 몯 보나니.
우리는 이목 총명(耳目聰明) 남자(男子)로 농고(聾瞽)같디 마로리라.

제9곡
고인(古人)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古人)을 몯 뵈.
고인을 몯 뵈도 녀던 길 알패 잇내.
녀던 길 알패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제10곡
당시(當時)예 녀든 길흘 몃 해랄 바려 두고,
어듸 가 단니다가 이제아 도라온고.
이제아 도라오나니 년 듸 마음 마로리.

제11곡
청산(靑山)안 엇뎨하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난 엇뎨하야 주야(晝夜)애 긋디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 상청(萬古常靑)호리라.

제12곡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긔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긔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듕에 늙난 주를 몰래라.

- 원이엄마편지(1586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뜬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한글 편지이다.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택지 조성을 위해 묘를 이장하던 중 발굴된 고성 이씨 이응태의 묘에서 출토됐다. 1998년 안동시 정상동의 택지 조성 과정 중에 무연고 분묘가 발견된다. 주인 없는 무덤이었기에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발굴을 위해 무덤의 외관 뚜껑을 연 순간 "철성이씨鐵城李氏"라고 쓰인 명정이 나왔다. 따라서 묘는 다시 유연고 분묘가 되었고, 무덤의 주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무덤 속 시신의 가슴 위에서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된다. 바로 <원이엄마 편지>다. 이응태의 시신은 미라 상태였다. 머리카락, 수염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시신의 주변에서 총 18통이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편지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원이엄마 편지>는 예외였다. 한글로 쓰인 이 편지는 이응태의 시신처럼 보존이 잘 되어있었다.

'원이 아버님께 올림-병술년 유월 초하룻날'이라고 시작하는 <원이엄마 편지>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내의 슬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1586년 6월 1일, 편지의 주인공인 이응태는 31살의 나이에 어린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린 자식과 임신한 몸으로 남은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남편의 장례를 앞두고 아내는 붓을 들어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슬픔을 한지 위에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간다.

"당신을 향한 마음,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도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종이가 부족하자 아내는 종이를 돌려 모서리, 여백에 다시 글을 써 내려간다. 가로 58.5cm, 세로 34cm의 종이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절실한 심정으로 빈 곳 없이 가득 찼다.

<원이엄마 편지>는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썩지 않고 거의 완벽히 보존되었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원이엄마 편지> 속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존재한다. <원이엄마 편지>에는 '자내'라는 단어가 총 14번 등장한다. 원이엄마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내'를 사용한 것이다. 16세기 조선시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서로를 '자내'라고 부를 정도로 평등했던 것일까? 아니면 원이엄마가 틀을 깨고 쓴 것일까? 사실 '자내'라는 단어는 현재는 아랫사람에게 쓰는 호칭(자네)로 바뀌었지만 임진왜란 전까지는 상대를 높이거나 적어도 동등하게 대우해 부르는 호칭이었다. 이 편지를 통해 과거의 '자내'와 현대의 '자네'는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을 향한 원이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시신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미투리'이다. 미투리는 보통 삼으로 만들기에 황토색을 띠는데 이응태의 묘에서 발견된 미투리에는 검은색이 섞여 있다. 검은색 실 같은 것으로 만든 미투리. 과연 검은색 실의 정체는 무엇일까?

2002년 한 국내 방송사에서 검은색 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한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검은색 실은 바로 머리카락, 수백여 년 전 사람의 머리카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머리카락은 원이엄마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미투리를 싸고 있던 한지에 '내 머리 배혀', '이 신 신어 보지'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미투리에서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 신을 신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원이엄마 편지>와 <미투리>. 이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잊어가는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이엄마 편지 (KBS 천상의 컬렉션)

- 음식디미방(1670년)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정부인 안동 장씨 장계향이 쓴 것이다. 책 표지에 <규곤시의방>이라 적혀 있는데 남편이나 후손들이 격식을 갖추어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2대 궁중 음식 기능보유자 황혜성과도 인연이 깊다. 황혜성이 이 책의 소식을 듣고 재령 이씨 종손 댁을 찾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그 댁 종

손인 이돈 씨를 만났다. 이후 제사에 참석하며 인연이 시작되었다. 황혜성은 이 책에 기록된 음식을 손수 재현하는 것은 물론 현대어 번역까지 도맡아 책으로 출간하면서 <음식디미방>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내용은 면병류, 조과류, 어육류, 채소류, 초류, 주류로 나뉜다. 그중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료나 음식도 있고, 아예 사라졌거나 내용이 바뀌어 전혀 다른 음식으로 변한 것도 있다. 고추가 음식에 널리 사용되기 전에 쓰였기 때문에 음식에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반면, 마른 해삼, 마른 전복, 자라, 꿩, 참새, 웅장 등 오늘날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의 손질법이나 조리법이 종종 등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음식디미방 (음식고전, 2016. 10. 17., 한복려, 한복진, 이소영)

- 온주법(1700년)

蘊酒法. 조선 후기 170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한글 요리책이다. 의성 김씨 대종가의 종손들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서울의 궁중음식연구원에 소재 중이다. 책의 권두 서명은 <술법>이라고 하고 겉표지에는 온주법이라 적혀 있는데 이는 필사본 한글 고조리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온주법의 온(蘊)은 간직한다는 뜻으로 술을 만드는 법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에 있는 의성 김씨 집성촌 청계공 종택에 소장되어 있다. 조리에 사용되는 조미료는 후추, 생강, 사탕, 천초, 겨자 등으로 고추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에 빙사과가 나오고 빙사과의 문헌상의 첫 등장이 1789년이니, 온주법은 대략 170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온주법에 기록된 음식은 총 56항, 130종으로 그중에서 주류가 44항, 57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술과 장을 담지 않는 날이 적혀 있으며, 뒤편에는 조약법(造藥法) 9항과 기타 염색, 의복 관리 방법 등이 적혀 있다. 안동 지역 전통술은 수운잡방 59종, 음식디미방 51종, 온주법 54종, 총 164종의 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이름의 음식이더라도 조리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각 조리서간의 편찬 연대 차이를 생각해볼 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음식 만드는 법이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운잡방과 온주법에 나오는 송엽주의 경우 수운잡방의 송엽주는 솔잎을 물과 함께 넣어 끓여 졸인 후 쌀가루를 넣어 죽을 만들고 이어 누룩과 섞어 익힌 후 21일 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주법의 송엽주는

각 계절에 다른 방향에서 솔잎을 따서 가루를 만들어 술과 함께 섞어 마시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수운잡방은 솔잎을 넣어 술을 익히는 방식이고 온주법은 술에 솔잎 가루를 섞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의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무위키] 온주법 내용 부분 참고

- 시의전서(19세기말)

조선 후기 음식을 조리법에 따라 분류·정리하여 편찬한 조리서. 상·하 2편 1책. 필사본. 1911년에 설립된 대구인쇄합자회사(大邱印刷合資會社)에서 인쇄한 상주 군청의 편면괘지(片面罫紙)에 모필로 적어놓았다. 이 책은 1919년에 심환진(沈晥鎭)이 상주 군수로 부임하여 그곳의 반가에 소장되어 있던 조리책 하나를 빌려서 괘지에 필사해둔 것이 그의 며느리 홍정(洪貞)에게 전해진 것이다. 심환진의 필사 연대는 1919년경이지만 원본은 1800년대 말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광범위한 조리법을 비교적 잘 분류, 정리하여 조선 말기의 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나 군데군데 삽입된 조리법이 분류상 제자리에 있지 못하여 약간씩 혼란을 주고, 경상도 사투리가 현저하게 눈에 띄며 표기의 통일성도 없다. 그리고 혼돈되기 쉬운 감미음료인 식혜와 감주 사이의 관계가 밝혀져 있으나 생선식해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

상편에는 장·김치·밥·미음·원미·죽·응이·찜·선·탕·신선로·회·면·만두·전골·전·구이·포·장육·자반·나물·조치·화채·약식 등이 수록되어 있고, 하편에는 전과·편·조과·생실과·약주·제물·회·채소목록·각색 염색·서답법·반상도식까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반상도식은 매우 귀한 것으로 구첩반상·칠첩반상·오첩반상·곁상·술상·신선로상·입맷상 등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술의 종류, 식품의 종류, 건어물의 종류, 채소의 종류가 매우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식품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전재)

- 상주 쾌재정에서 작성된 최초의 한글 소설인 <설공찬전>

1511년(중종 6) 무렵 채수(蔡壽)가 지은 고전소설. <중종실록>에서는 '설공찬전(薛公瓚傳)',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에서는 '설공찬환혼전(薛公瓚還魂傳)'으로 표기하였고, 국문본에서는 '설공찬이'로 표기하고 있다. 한문 원본은 1511년 9

월에 그 내용이 불교의 윤회화복설을 담고 있어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여 왕명으로 모조리 불태워진 이래 전하지 않는다. 그 국문필사본이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默齋日記)> 제3책의 이면에 「왕시전」·「왕시봉전」·「비군전」·「주생전」 국문본 등 다른 고전소설과 함께 은밀히 적혀 있다가 1997년 극적으로 발견되었다. 국문본도 후반부가 낙질된 채 13쪽까지만 남아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순창에 살던 설충란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딸은 혼인하자마자 바로 죽고, 아들 공찬도 장가들기 전에 병들어 죽는다. 설공찬 누나의 혼령은 설충란의 동생인 설충수의 아들 공침에게 들어가 병들게 만든다. 설충수가 주술사 김석산을 부르자, 혼령은 공찬이를 데려오겠다며 물러간다. 곧 설공찬의 혼령이 사촌 동생 공침에게 들어가 왕래하기 시작한다. 설충수가 다시 김석산을 부르자 공찬은 공침을 극도로 괴롭게 하는데, 설충수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자 공침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 공찬은 사촌 동생 설원과 윤자신을 불러오게 하는데 이들이 저승 소식을 묻자 다음과 같이 전해 준다.

저승의 위치는 바닷가이고 이름은 단월국, 임금의 이름은 비사문천왕이다. 저승에서는 심판할 때 책을 살펴서 하는데 공찬은 저승에 먼저 와 있던 증조부 설위의 덕으로 풀려났다. 이승에서 선하게 산 사람은 저승에서도 잘 지내나, 악한 사람은 고생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승에서 왕이었더라도 반역해서 집권하였으면 지옥에 떨어지며, 간언하다 죽은 충신은 저승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여성도 글만 할 줄 알면 관직을 맡을 수 있다. 하루는 성화 황제가 사람을 시켜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의 저승행을 1년만 연기해 달라고 염라왕에게 요청하는데 염라왕은 고유 권한의 침해라고 화를 내며 허락하지 않는다. 당황한 성화 황제가 친히 염라국을 방문하자 염라왕은 그 신하를 잡아 오게 해 손을 삶으라고 한다.

이 작품은 귀신 또는 저승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채수는 어렸을 때 귀신이 출현하는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작품 창작에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남염부주지」·「박생」이야기 같은 여타 저승경험담 계열의 전기(傳奇)소설이나 설화에서와는 달리, 주인공이 살아나지도 그 일을 꿈속의 일로 돌리지도 않는다. 다만 주인공의 영혼이 잠시 지상에 나와 자기 경험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순창이라는 실제 지역을 배경 공간으로 삼아 이곳을 관향으로 하는 설씨 집안의 실화라 표방하고 등장인물도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을 교묘히 배합해 설정하였

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원귀 관념 및 무속에서의 공수현상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채수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어떠한 주제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강직한 언관의 길을 걷던 채수는 중종반정 직후 관직을 버리고 처가인 함창(지금의 상주)에 은거하였는데 여기에서 쾌재정을 짓고 소일하는 동안(1508년에서 1511년 사이) 평소 발언하고 싶었던 바를 이 소설을 빌어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인공 공찬의 혼령이 전하는 저승 소식인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연산군을 축출하고 집권한 중종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폭군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보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신하의 바른 도리라는 평소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여성이라도 글만 할 줄 알면 얼마든지 관직을 받아 잘 지내더라는 대목도 주목되는데 이는 여성을 차별하는 조선의 사회 체제를 꼬집은 것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 이 작품은 유교 이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혼과 사후세계의 문제를 끌어와 당대의 정치와 사회 및 유교이념의 한계를 비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지니는 국문학사적 가치는 지대하다. 이 작품은 「금오신화」를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소설로서 「금오신화」(1465～1470)와 <기재기이(企齋記異)>(1553) 사이의 공백을 메꾸어 주는 작품이다. 특히 그 국문본은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소설(최초의 국문번역소설)로서 이후 본격적인 국문소설(창작국문소설)이 출현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초의 국문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이 장편인데다 완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필시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국문 표기 소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그 중간 작품으로 제시된 「안락국태자전」·「왕랑반혼전」 등이 모두 소설이 아닌 불경의 번역이라 안타까워했는데, 「설공찬전」의 국문본이 발견됨으로써 이 가설이 물증으로 증명되었다. 이 작품은 조선 최초의 금서로 규정되어 탄압받았을 만큼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인기를 끌어 조정에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설로는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되었으니, 소설의 대중화를 이룬 첫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된 것은 이러한 인기와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작품의 국문본은 우리 소설 연구에서

번역체 국문소설(광의의 국문소설)의 가치를 적극 평가할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준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전재)

4)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 중인 내방가사

내방가사(內房歌辭)는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지은 문학의 한 형태이다. 규방가사 혹은 규중가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영남대가내방가사(嶺南大家內房歌辭)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18] 조선시대 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남쪽 지방의 양반 집안에서 특히 유행하였다. 한글로 된 것이 많아 한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며,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예술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현재 두루마리에 한글 궁서체로 쓴 6천여 필이 넘는 작품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내방가사 전승과 보존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경북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19]가 있다.

남성 위주의 봉건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한 경우가 많다. 출가하는 딸에 필요한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출가한 딸이 고향을 그리워 하는 내용, 형제나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 계절과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 등등, 다양한 생활의 장면들이 담겨있다. 대표적 작가로 허난설헌 등이 있으나, 대부분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다.

경북 지역의 종가와 종택에서 대를 이어 전해져 왔기에 그곳 여성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지만, 향유층의 고령화로 인해 가사의 원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낭송법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재 내방가사는 일부 문헌에서 그 소장처와 내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필사로 전승됐기에 원본의 관리와 보존 상황이 허술한 상태에 있다. 이에 내방가사의 체계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내방가사의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학술 연구의 조성을 위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20] 내방가사는 주로 고전문학의 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타 학문의 영역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내방가사는 대부분 필사본으로 되어 있어서 국어학적인 해석과 자료에 대한 정확한 서지 정보를 확보할 때 비로소 자료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방가사가 경북 지역의

18) 김윤희 외(2020),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국립한글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71쪽에서 재인용
19) 김윤희 외(2020),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국립한글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87쪽 참고
2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방가사' 설명 내용 참고하여 서술함

문중이나 종택 등 민간에 소장된 것이 대부분이고, 향유층이 주로 양반가의 여성이며, 그 내용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속박된 생활 속에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문학사에서 특별한 영역을 차지하는 여성 문학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사나 고전문학사, 특히 여성문학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방가사의 출처가 경북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시적 방언 자료와 관련하여 국어학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윤희 외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책자에서 발췌 요약)

5)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간경도감 자료

- 간경도감 자료

간경도감은 조선 초기 세조 때 불경의 국역과 판각을 관장하던 관립기관이다. 세조 임금은 1459년 유교를 신봉하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역증보판 <월인석보>를 간행한 바 있다. 세조는 이 경험을 살려 불경 간행을 국가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왕권으로 간경도감을 신설하고 제도화하였다. 세조의 강력한 왕권에 의하여 간경도감에서 불경의 국역 및 간행이 한때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의 숭불정책은 당시 지배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다만 왕실과 일부 양반 계층 그리고 서민층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성종의 등극 이후 이마저도 쇠퇴하게 되었다. 당시 간경도감에서는 한자본 불경의 간행과 함께 국역본 불경을 간행하고 반포하였다. 숭유억불책을 써왔던 조선시대에 침체하여 가는 불교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경전을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간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국역본은 당대의 명필가를 총동원하여 모두 일정한 체재와 형식으로 독특하게 판서본을 써서 정각한 판본인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1462년(세조 8) <능엄경언해> 발간을 시작으로 1463년에 <법화경언해>, 1464년에 <금강경>·<심경>·<미타경>·<영가집>, 1465년에 <원각경>, 1467년에 <수심결>·<법어>·<몽산법어약록> 등의 경전을 국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첫째, 귀중한 국어학 자료를 많이 생산하여 국어학사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있다. 특히 국역본 불경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일이므로 오늘날 학계의 연구에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한자본 불서를 한글로 번역한 문화사적 의의도 그 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주요 불전의 국역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이 불교의 근본 이념과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얻어 보기 어려운 귀중한 불경 자료를 많이 생산, 전유시킴으로써 불학 연구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들 수 있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내용 수정하여 전재)

- 월인석보 언해

조선 전기 제7대 왕 세조 임금이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1459년에 간행한 불교서이다. 목판본으로 된 초간본 10권(권1·2·7·8·9·10·13·14·17·18) 8책과 중간본 4권(권21·22·23·25) 4책이 1983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초간본 2권(권11·12) 2책이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합편하면서 책 묶음도 다르게 하고 내용도 많은 첨삭을 가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조권을 보면 <석보상절> 권11과 권19의 내용이 각각 <월인석보> 권21과 권18에 나타나는가 하면 같은 권13이 <석보상절>은 <법화경> 권1, <월인석보>는 <법화경> 권2, 3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권11부터 책 순서가 달라져 있다. 문장과 표기법을 보면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와 독음 표기의 위치, 한자음 종성 'ㅇ'과 협주의 추가, 어구의 수정 등 부분적인 손질에 그쳤으나, <석보상절>은 많은 수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간행된 <월인석보>는 전혀 새로운 문헌이 되었다.

편찬 동기는 죽은 부모와 일찍 죽은 아들을 위한다고 되어있지만, 세조의 관점에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 죽이고 왕위에 올라 사육신 등 많은 신하를 죽인 끝에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회한과 무상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석보상절>로 미루어서 모두 24권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중간본까지 합쳐도 완질이 되지 못한다.

이 책은 세종과 세조의 2대에 걸쳐 임금이 짓고 편찬한 것으로 현존본에 나타난 판각 기법이나 인쇄 솜씨 등을 보면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편찬·간행되었던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세조 때 다시 편집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한글 변천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선 초기에 유통된 중요 경전이 취합된 것이므로 당시 불교 경전의 수용 태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록)

6) 경북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청단놀음

①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 오는 탈놀이.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 근원은 서낭제의 탈놀이로서 우리나라 가면극 전승의 주류를 이루는 광대들이 연희하는 산대도감 계통극과는 달리 동제에 행하여지던 의식이 극으로 바뀌어 전승되어 온 것이다. 서낭제에 탈놀이를 놀았던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에서는 하회리와 병산리가 알려져 왔으나, 하회별신굿은 1928년 이래 중단되고 병산별신굿도 거의 같은 시기에 중단되어 하회와 병산의 가면 12종 13개만이 국보로 지정되어 왔다.

1928년 마지막 별신굿 때 각시역을 맡았던 이창희(李昌熙, 1913～1996) 계승자의 구술과 지도로 전승되었고, 사후에는 후계자들이 이어받았다. 이 놀이는 10년에 한 번씩 혹은 신탁에 따라 임시로 거행되는 별신굿의 하나로 행해지는데 별신굿은 먼저 섣달 보름날 산주(山主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마을 뒷산의 서낭당에 올라 대를 내려 신의 뜻을 묻고 또 마을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 별신굿 준비를 시작한다.

하회리의 서낭신은 '무진생 서낭님'으로 17세 처녀인 의성 김씨라고 하고 혹은 15세에 과부가 된 서낭신으로 동네 삼신의 며느리신이라고도 전한다. 준비 과정은 먼저 부정이 없는 목수를 골라 서낭대와 내림대를 만들고, 가면과 악기 등 모든 도구를 점검한다. 이어 스무아흐렛날 동민 대표들이 동사(洞舍)에 모여서 부정이 없는 사람 중 배역에 맞추어 광대 12명과 산주 외에 서무를 맡는 유사(有司) 2명, 가면 관리를 하는 청광대와 무동꾼들을 선정하고 섣달그믐날부터 정월대보름날까지 합숙에 들어간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대내림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 산주와 광대들이 서낭당에 올라가 당방울이 달린 내림대를 잡고 서낭신을 내리면 당방울을 서낭대에 옮겨 달고 하산한다. 동사에 다다르면 서낭대와 내림대를 동사 처마에 기대어 세우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농악을 울리며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

이창희 계승자의 구술에 따르면 탈놀이의 **첫째마당**은'**각시의 무동'마당**이다. 각시광대는 무동을 타고 꽹과리를 들고 구경꾼들 앞을 돌면서 걸립(乞粒 : 동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패를 짜 돌아다니며 풍악을 울리는 일)을 한다. 이 걸립은 탈놀이 전 마당을 통하여 수시로 행하여졌고, 이렇게 모은 전곡(錢穀)은 모두 별신굿

행사에 쓰고 남으면 다음 행사를 위하여 세워둔다. **둘째마당은 '주지놀이'**로 주지는 곧 사자를 뜻하며 액풀이마당으로 벽사(辟邪)의 의식무(儀式舞)라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마당은'백정(白丁)'마당으로 백정이 춤을 추다가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써서 만든 소를 죽여 우낭(牛囊)을 꺼내어 구경꾼들에게 판다. 이것도 걸립의 일종으로 이 돈도 별신굿 행사에 쓴다. **넷째마당은 '할미'마당**으로 쪽박을 허리에 차고 흰 수건을 머리에 쓴 할미광대가 등장하여 살림살이를 한다. 베를 짜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베틀가>에 얹어 부르고, 춤을 추다가 쪽박을 들고 걸립한다. 이처럼 각시걸립과 백정걸립에 이어 할미걸립까지 세 마당의 걸립이 계속되는데 이 걸립마당들은 이 탈놀이의 주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파계승마당과 양반풍자마당을 위한 도입부 구실을 한다.

다섯째마당은'파계승'마당으로, 부네(妓女 혹은 小室)가 오금춤을 추며 등장하여 치마를 들고 오줌을 눈다. 이때 중이 등장하여 이 광경을 엿보다가 흥분하여 부네를 옆구리에 차고 도망간다. 이 마당은 대사 없이 진행된다. **여섯째마당은 '양반과 선비'마당**으로 양반이 하인인 초랭이를 데리고 나오고 선비는 소첩인 부네를 데리고 나온다. 초랭이가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서로 인사를 시키고는 자기가 뛰어들어 양반 대신 선비 인사를 받는다. 초랭이는 계속해서 양반을 풍자하고 골려준다. 양반과 선비는 서로 문자를 써가며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고 춤을 추고 노는데, 이때 별채(別差)역인 이매가 나와 환재(還子) 바치라고 외치면 모두 깜짝 놀라 도망간다. 여기서는 관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두면서 중간 착취하는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이로써 여섯 마당의 탈놀이는 끝난다.

섣달그믐날부터 동사에서 합숙한 일행은 항상 동사 앞마당이나 초청받은 대갓집에 가서 탈놀이를 하는 등 14일까지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지내다가, 15일이 되면 아침밥을 먹고 나서 서낭대를 모시고 서낭당에 올라가 당제를 지낸다. 제사는 산주가 주제하며, 축문은 없고 비념만으로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축원한 다음 종일 소지(燒紙)를 올려 계속된다.

광대들은 처음에는 탈을 쓰지 않고 산주와 더불어 서낭당에 재배한 뒤 서낭당을 돌면서 풍물을 치고 나서, 탈을 쓰고 서낭당 둘레에 모여든 구경꾼들 앞에서 탈놀이를 놀았다. 저녁 무렵 당제를 마치고 서낭대와 내림대는 당 처마에 매달고, 광대들은 청광대에게 각기 탈을 반납하고 보름만에 합숙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다.

다만 유사와 광대 1명, 양반광대·각시광대만이 남아 하산하여 동네 입구에서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을 치른다. 멍석 위에 장구 2개, 그 위에 고깔을 하나씩 놓아 혼례상을 마련하고, 양반광대가 혼례식을 진행하며, 각시광대와 남은 광대 하나가 각기 탈을 쓰고 신부·신랑역을 맡아 각시가 두 번, 신랑이 한 번 절하고 혼례마당을 끝낸다.

이어 같은 멍석 위에서 신랑·신부의 첫날밤 행위를 모의적으로 행함으로써 신방마당을 치른다. 이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은 17세 처녀신인 서낭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치르는 것이라 하는데, 풍요의례(豊饒儀禮)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신방마당이 끝나면 각시광대도 탈을 청광대에게 주고, 청광대는 탈을 동사에 봉납하고 귀가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의 책임하에 동네 입구에서 무당들이 허천거리굿을 행하여 별신굿 동안 묻어 들어온 잡귀·잡신들을 몰아낸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가면은 주지(2)·각시·중·양반·선비·초랭이·이매·부네·백정·할미 등 10종 11개가 현재 전한다. 가면의 재료는 오리나무이며 그 위에 두 겹, 세 겹으로 옻칠을 한 뒤 색을 칠했다. 하회리에서는 이 탈들을 신성시하며 특히 각시탈은 서낭신을 대신한다고 믿어 별신굿 때 외에는 볼 수 없고, 부득이 꺼내볼 때는 반드시 산주가 고사를 지내야 한다. 이처럼 의례용 가면으로서의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

악기는 농악기로 탈놀이 광대들이 농악대를 겸하였고, 탈놀이 마당과 마당 사이에 한 차례씩 농악을 울려 놀이마당을 구분하였다. 장단은 주로 세마치장단을 많이 쳤다고 한다. 춤이나 동작은 놀이할 때 서낭님이 시켜서 저절로 하게 된다고 일러오며, 다른 탈춤의 경우처럼 춤사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즉흥적이며 일상 동작에 약간의 율동을 섞은 것이었다고 한다. 춤사위로는 몽두리춤과 오금춤이 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내용 발췌하여 수록)

② 예천청단놀음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에서 행해진 대사나 사설이 없는 가면묵극(假面默劇) 형태의 민속놀이다. 201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청단'이라는 명칭의 어원은 가면의 색상에서 왔을 듯하나 분명하지는 않으며, ≪동국세시기≫의 12월조에 보이는 나희(儺戲)의 청단(靑壇)과 어음상(語音上)의 연관도 연상된다. 나희는 세모의 세시풍속으로 가면극을 수반하는 굿판이고, 또

청단은 '靑丹'·'靑壇' 어느 쪽으로도 한자화할 수 있으니, 양자의 연관을 연상할 수 있으나 현재 고증은 어렵다. 청단놀음은 주로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 한천(漢川) 백사장에서 장막을 둘러치고 노는데, 음력 정월 보름께에 놀기도 한다. 대사(臺詞)나 사설이 전혀 없는 가면묵극(假面默劇)으로 모든 내용이 춤으로 표현된다. 이 극은 언제부터 놀아왔는지 알 수가 없으나 1935년의 놀음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1981년 이래 다시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다.

읍내에 전하는 유래담에 의하면 옛날 전라도의 어느 부호가 잃어버린 부인을 찾기 위하여 탈을 만들고 춤이 능한 자를 모아서 놀이판을 벌이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이름하여 '청단'이라 하였다. 마침내 예천읍 동본동(東本洞)에서 놀이를 베풀었을 때 많은 관중 속에서 부인을 찾아내었다. 부호는 부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부터 어찌 된 일인지 예천읍에서는 자주 화재가 일어나서 두통거리가 되었다. 읍내의 원로들이 모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청단'의 영향임을 알아내고 청장년을 모아 재연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읍내에서는 씻은 듯이 불이 나지 않고 따라서 이후 해마다 이 놀음을 놀아왔다고 한다.

청단놀음에 사용되는 탈이나 의상은 모두 한량들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농악도 그들이 직접 치며, 광대도 역시 그들이 담당하였다. 농악은 외마치장단·세마치장단 및 살풀이장단뿐이고, 춤은 덧뵈기가 중심이다. 박으로 만든 탈이 19개, 키〔箕〕로 만든 탈이 4개이며, 무동(舞童)역을 하는 어린이 외에 광대의 총수가 25명, 농악 악기는 꽹과리·장구·징·북·호적·소고 등이다.

전체 여덟 마당으로 짜여 있는데, 과거에는 갹출되는 경비에 따라 한두 마당의 가감이 있었다. **첫째마당**은 광대놀음으로, 광대 2명이 북을 치며 춤을 춘다. 때때로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농악 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논다. **둘째마당**은 주지놀음으로, 2명의 주지광대가 저마다 주지판을 들고 서로 부채질을 하고 또 관중 앞으로 다가가서 부채질을 하면서 춤을 춘다. **셋째마당**은 행의놀음으로, 양반과 사대부가 즐겁게 춤을 추며 노는데 기생인 쪽박광대가 나타나서 양반과 사대부를 번갈아 가며 유혹한다. **넷째마당**은 학춤〔鶴舞〕으로, 학이 나와 춤을 추면 박쥐와 제비가 차례로 나와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다섯째마당**은 지연광대놀음으로, 키로 만든 커다란 탈을 쓴 4명의 지연광대가 긴 수염을 휘날리며 춤을 춘다. **여섯째마당**은 파계승놀음으로, 쪽박광대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탁발승이 지나다가 이를 목격하고 쪽박광대의 유혹에 빠져 놀아나는데 초랭이가 나와 호통을 친다. **일곱째마당**은 바라

춤으로, 여승 2명이 고깔을 쓰고 바라를 들고 춤을 춘다. **여덟째마당**은 무동으로, 이동무 4조와 삼동무 2조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 민속극은 그 전설로 보아 시장에서 벌이는 놀이마당인 듯하나, 우리나라 전래의 도시가면극과 농촌가면극 중 어느 계통인지 분명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 주로 탈춤으로 표현되는 묵극(默劇: 몸짓극)이다. 사대부나 파계승을 풍자한 내용 등은 다른 지방의 영향을 입은 듯하다. 담당자가 지방의 한량들이며 노는 시기가 세시풍속과도 별로 관계가 없고 장소도 냇가라는 점 등은 지금까지의 민속극 연구에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다.[21]

(성병희, 1978,「예천청단놀음」에서 발췌 인용)

21) 성병희(1978), 우리 고장의 민속-「예천청단놀음」편, 경상북도, 90쪽-110쪽 발췌 요약

4. 효율적인 전시 방법 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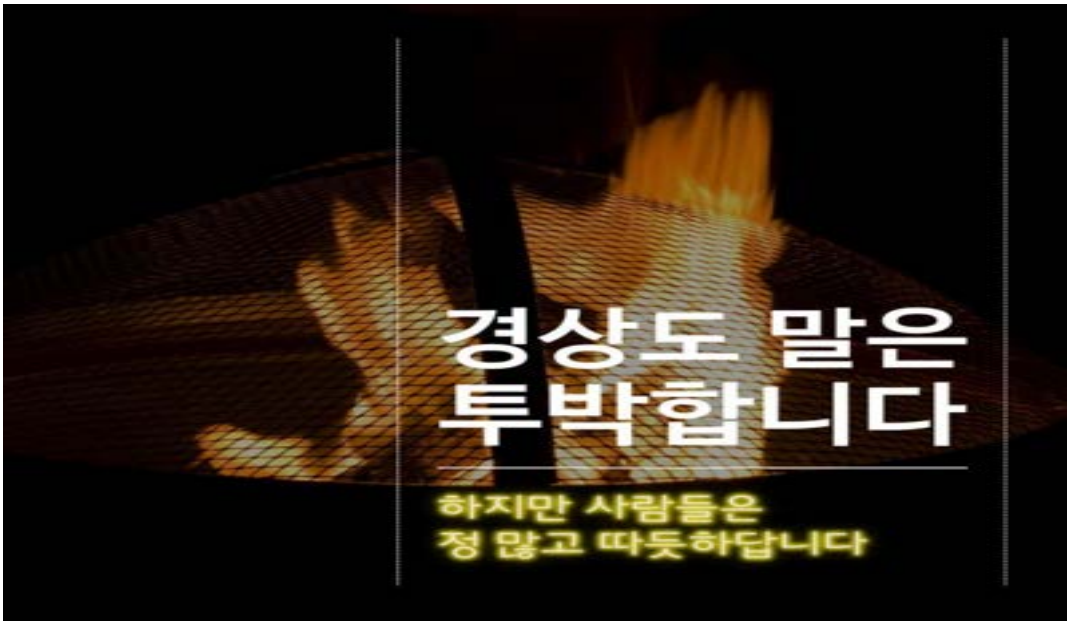
경북 지역 국어문화를 전시하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관람하는 관람자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이때 말하는 영향력은 관람자에게 흥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말한다. 즉 관람자를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전시물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관람자의 흥미를 끌 수 없다면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국어문화관을 관람하는 대상자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만을 전시한다면 쉽게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국어문화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전시 방법을 구안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흥미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내용은 앞서 내용 선정과 정리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오랜 역사를 가진 자료들로 어려운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제시한다고 좋은 전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양한 학생들이 관람할 예정인 전시관의 특성상 초등학생 수준에만 맞추어 전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수준에 맞추어 다른 전시물을 준비하고 학년별 부스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국어문화를 전시하는 공간과 체험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전시에 특화된 공간에서는 어떻게 전시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여 잘 구성된 전시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전시물 외에 학년에 따라 흥미 있어 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기본적인 전시물은 쉽고 흥미롭게 제시하고 추가적인 관심이 있으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면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시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단 만들어진 전시물이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내용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관람자에게 전시물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국어문화관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국어문화에 대한 것이고 결국은 미

래의 국어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문화를 과거의 것만 전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선정한 6가지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보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전시안을 이 지면에서 모두 만들어 전시하는 것은 이 연구의 여건상 불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아트디렉터가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지면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위한 전시 내용의 예시 자료 정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 경북 지역 사투리의 특성을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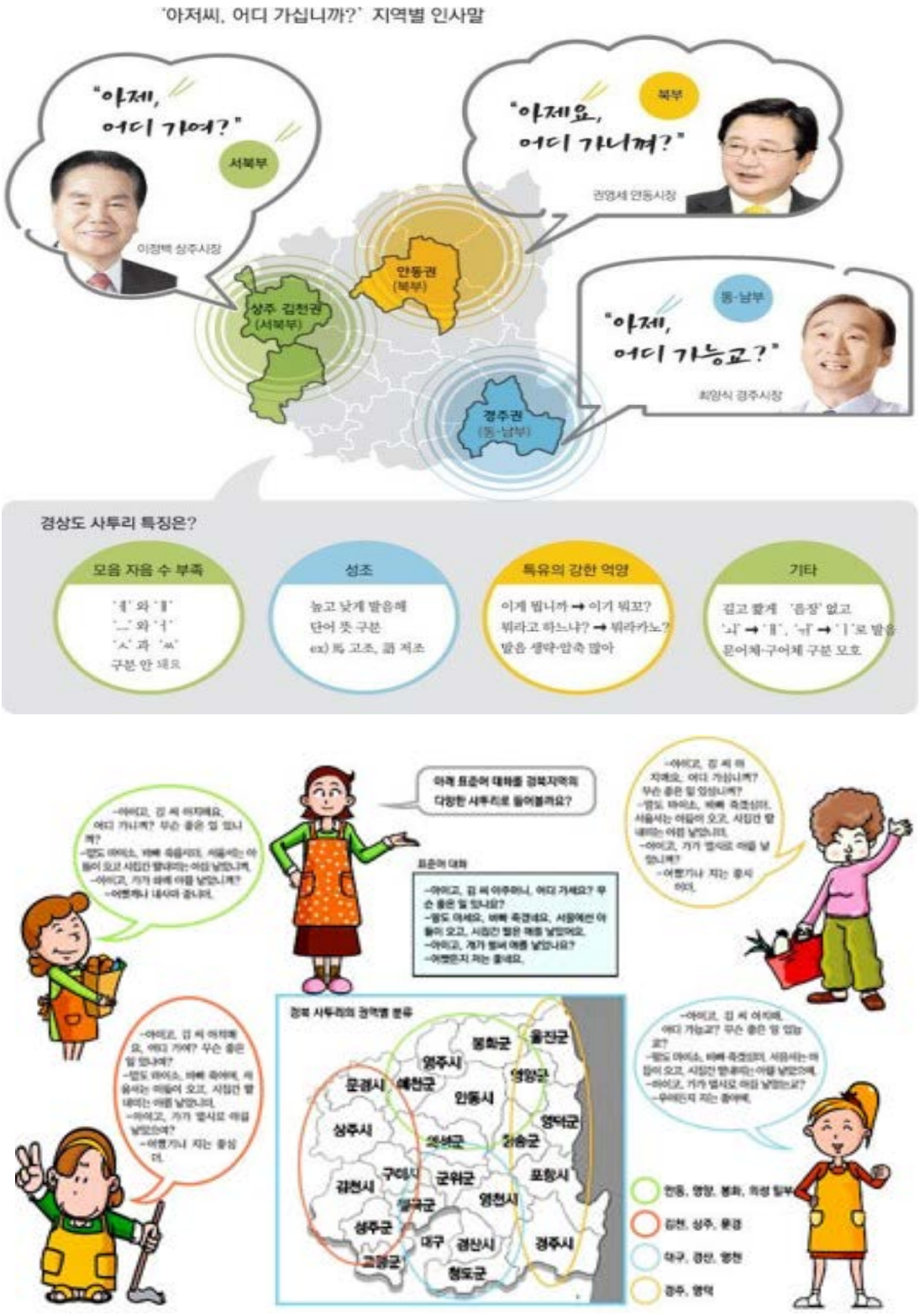
경상도 사람들 대화를 들으면 싸우는 줄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경상도 사람과 친하여지고 보면
말투와 다르게 따뜻한 경상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확실히 투박해요. 억양도 강합니다.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알고 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경상도 친구들과 사귀어보세요.
경상도 사투리의 참맛과 경상도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될 거예요.

경북 지역 사투리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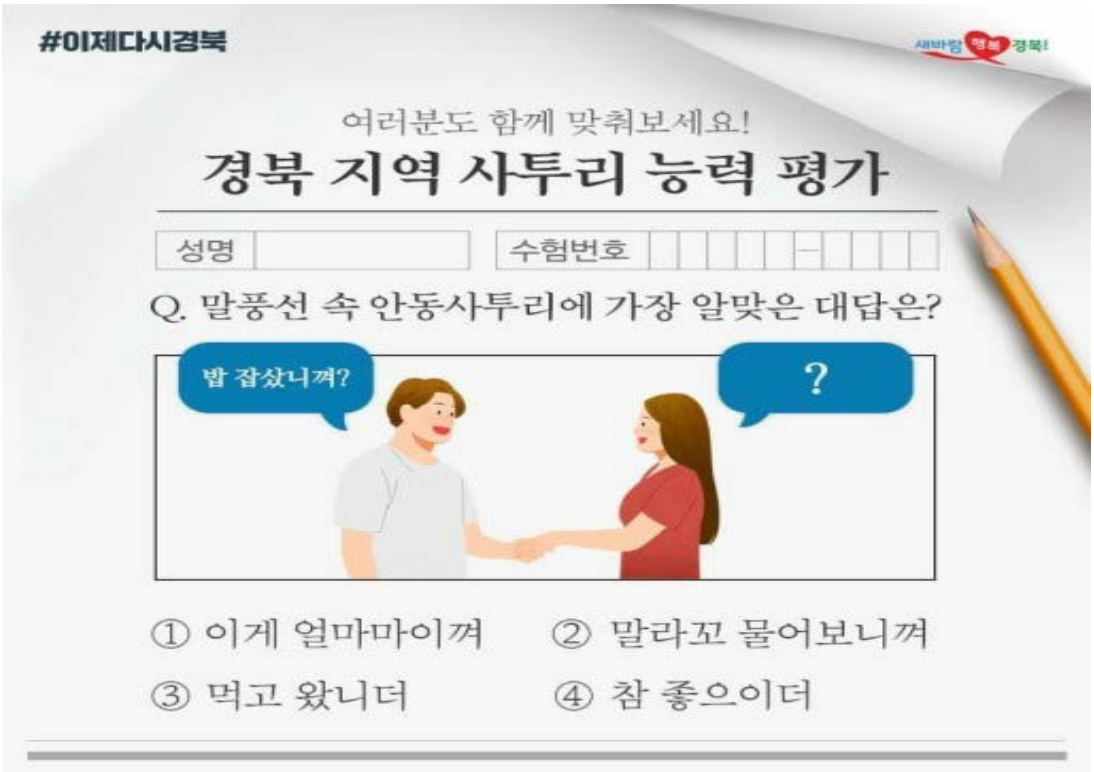
경상도 사투리 시험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22)]

위 문제의 답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투리 능력자입니다.
정답은 4번, 왜 4번인지 알아볼까요?

22) 경북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북 지역 사투리 능력 평가" 자료 인용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지역별 인사말
"아제, 어디 가여?"
서북부
이정백 상주시장
"아제요, 어디 가니껴?"
북부
권영세 안동시장
"아제, 어디 가능교?"
동·남부
최양식 경주시장
안동권 (북부)
상주 김천권 (서북부)
경주권 (동·남부)
경상도 사투리 특징은?
모음 자음 수 부족
'ㅔ'와 'ㅐ'
'ㅗ'와 'ㅓ'
'ㅅ'과 'ㅆ'
구분 안 해요
성조
높고 낮게 발음해
단어 뜻 구분
ex) 돔 고조, 콤 저조
특유의 강한 억양
이게 뭡니까 → 이기 뭐꼬?
뭐라고 하느냐? → 뭐라카노?
발음 생략·압축 많아
기타
겹고 짧게 '음장' 없고
'ㅓ' → 'ㅡ', 'ㅟ' → 'ㅣ'로 발음
문어체-구어체 구분 모호
표준의 대화
경북 사투리의 경역별 분류
봉화군
울진군
영주시
영양군
문경시
예천군
안동시
상주시
영덕군
청송군
김천시
구미시
군위군
포항시
영천시
칠곡군
성주군
대구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청도군

#이제다시경북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경북 지역 사투리 능력 평가
성명
수험번호
Q. 다음 상황에서 아빠 말의 '정확한 뜻'은?
대박!
얼라가 하마 디비따
① 아기 하마 너 뒤졌다
② 얼려서 하마를 뒤집어버리겠다
③ 울아기가 벌써 뒤집기를 하네♡
④ 아기가 하마를 뒤집었다


#이제다시경북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경북 지역 사투리 능력 평가
성명
수험번호
Q. 말풍선 속 안동사투리에 가장 알맞은 대답은?
밥 잡샀니껴?
?
① 이게 얼마마이껴
② 말라꼬 물어보니껴
③ 먹고 왔니더
④ 참 좋으이더

아래 작품은 시인 박목월의 <사투리>라는 작품입니다. 경주 출신의 박목월 시인이 **사투리로 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 투 리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런 악센트로
오오라베 부르면
나는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

나는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디가 새까만
뽕나무를 사랑했다.
혹은 울타리 섶에 피는
이슬마꽃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

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 풀 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 냄새가 난다.
그리고 입 안이 마르는
황토 흙 타는 냄새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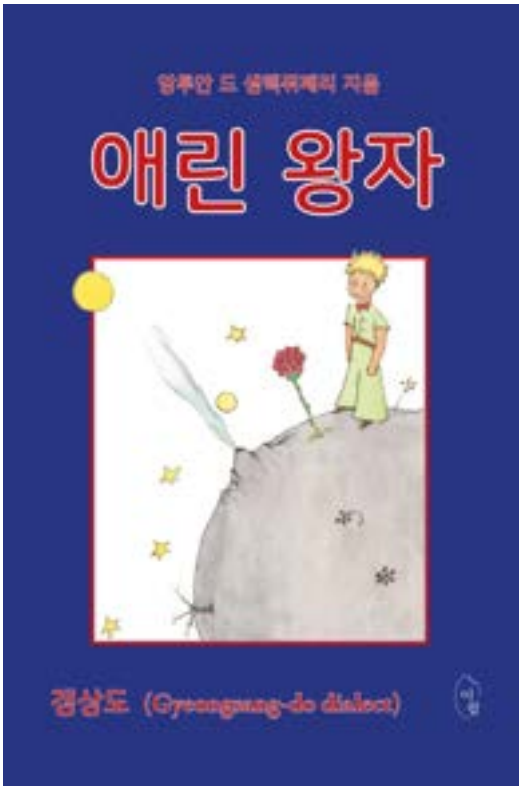
[출처] 박목월 - 사투리

경북 지역 안에서도 지역별로 사투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투리에는 지역별 특성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투리가 반영된 문학 작품도 많습니다.

박목월의 <사투리>는 서술어가 과거시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박목월의 서울 생활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사투리라는 소재로 쓴 시입니다. 바로 방언을 향토적 시적 정서, 곧 그리움의 상징으로 '오라베', '칵'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라는 표현에서 이중모음이 자음 아래에서 단모음화한 경상도 방언형이 '칵'이 아니라 '콱'으로 표현했다면 절묘하고 또 약간은 무식한 말투인 경상도의 맛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3연에서도 "사투리=풀냄새=이슬냄새=황토흙 타는 냄새"의 등식은 방언을 시어에 활용한 의도성을 적절하게 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투리로 표현한 문학 작품은 경북 지역의 정서를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 문학 작품을 경북 지역 사투리로 번역한 것이다.



"오후 4시에 니가 온다카믄 나는 3시부터 행복할끼라. 시간이 가믄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하긋제. 4시가 되모 나는 하마, 안달이 나가 안절부절 몬 하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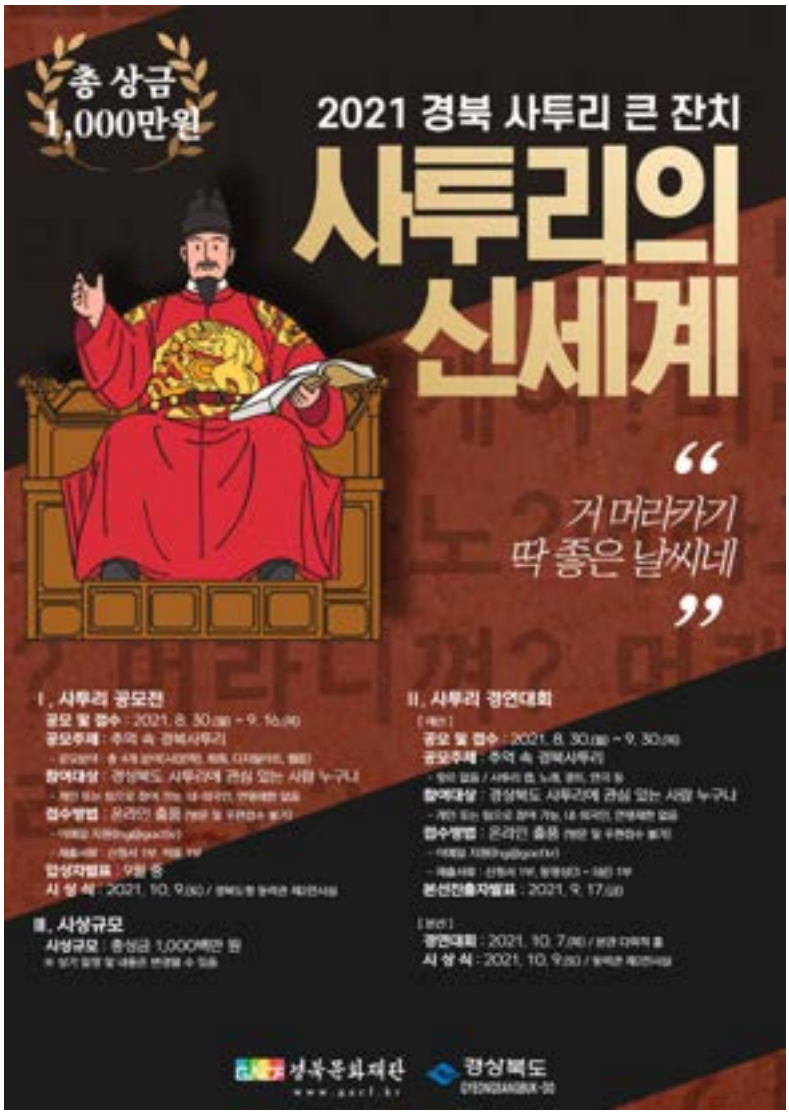
"내 비밀은 이기다. 아주 간단테이. 맘으로 비야 잘 빈다카는 거. 중요한 기는 눈에 비지 않는다카이."

"사막이 아름답은 기는, 어딘가 옹굴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데이..."

우리 경북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사투리는 우리 언어생활에서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경북 지역 사투리에는 경북 사람들의 혼이 담겨있습니다. 경북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경북 사투리를 다양하게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

다. 경북 사투리는 자랑스러운 경북의 국어문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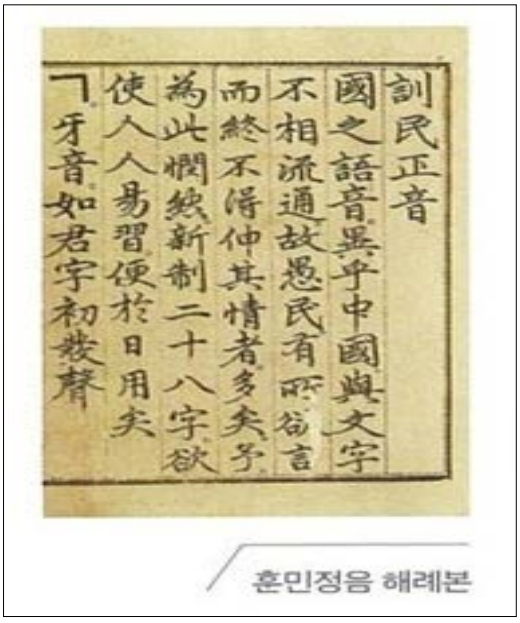
경북 지역 사투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투리 큰 잔치를 통해 사투리 공모전과 사투리 경연대회를 하고 있고, 영남지역사투리경연대회, 안동지역사투리경연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전국 유일의 훈민정음해례본 발견지가 경북인 것을 아시나요?

'훈민정음訓民正音'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한 글자의 이름으로 오늘날 한글이라 부르는 우리말 표기 체제이다. '훈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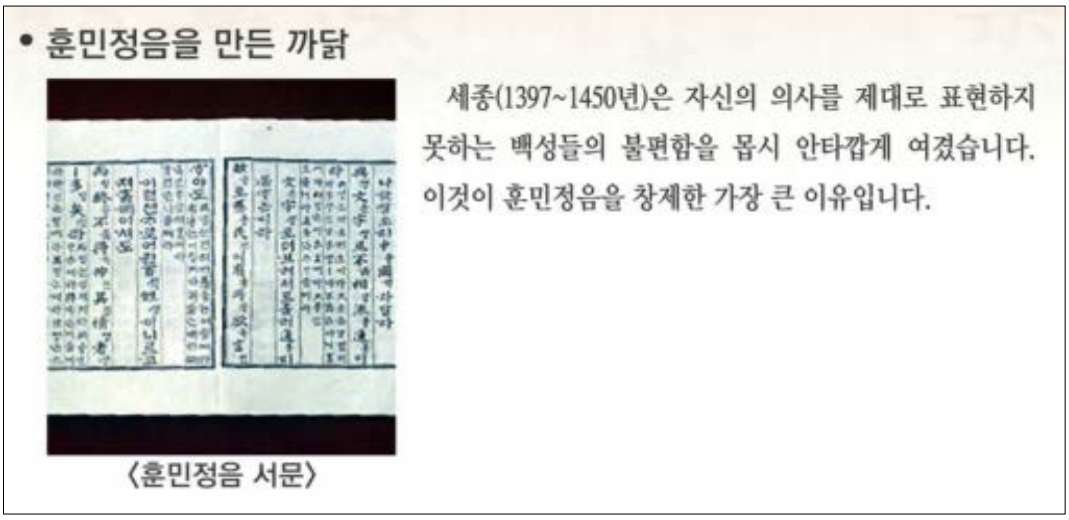
음'의 뜻은 월인석보 책머리에 실려있는 世宗御製訓民正音에 나와 있듯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며 28개의 낱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새로운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 세종대왕의 명으로 1446년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집필한 한문 해설서 제목이다. 이 책은 해례(解例)가 붙어있어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이라고 한다. 이 해례본의 발견으로 인해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다가 1940년대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후 간송 전형필이 입수하여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이며 이 해례본은 국보 제70호인 동시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오랜 세월 해례본은 단 한 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2008년 7월에 경북 상주에서 간송미술관의 것과 같은 판본이 발견되었다. 현재 알려진 훈민정음해례본 판본은 안동본(간송본)과 상주본 단둘뿐으로 모두 경북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상주본의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감춰두고 현재 내놓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간송본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판본으로 알려진 상주본에는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책 귀퉁이에 남아있어, 학술가치가 높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이 경북 지역에서만 발견된 것은 경북 지역이 그만큼 역사적 연원이 깊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 학계에서는 또 다른 훈민정음해례본을 찾고 있기도 하다. 또한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금속활자가 1,600여 점이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목판본뿐만 아니라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금속활자본 훈민정음해례본 찾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과 만든 사람들은?[23]



23)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발간자료 한글날 계기교육 자료에서 인용

세계로 나가는 한글의 현재는?[24]

24) 카드뉴스, '이 나라는 왜 한글을 배울까?'에서 발췌 인용

3) 우리 경북 지역의 다양한 옛 한글 자료를 알고 있나요?

① 어부가

이 듕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수를 안가.

구버는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靑山(만첩청산)
十丈紅塵(십장홍진)이 언매나 가렛는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ᄒᆞ거든 더옥 無心(무심)ᄒᆞ애라.

靑荷(청하)에 바블 ᄡᆞ고 綠柳(녹류)에 고기 ᄢᅦ여
蘆荻花叢(노적 화총)에 ᄇᆡ 미야 두고
一般淸意味(일반청의미)를 어니 부니 아ᄅᆞ실고.

山頭(산두)에 閑雲(한운)이 起(기)ᄒᆞ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無心(무심)코 多情(나징)ᄒᆞ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일생)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闕(북궐)이 千里(천리)로다
漁舟(어수)에 누어신ᄃᆞᆯ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어부가는 조선시대 중기 안동 지역의 이현보라는 선비가 쓴 시조 또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단가 5수는 당대 유행 곡조인 시조로 가창되었던 노랫말이고 어부장가 9수는 가사로 불리던 노랫말이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여 산에 오르고 강에 배를 띄우고 당대의 이름난 선비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노래 부르기를 즐겨한 이현보는 이와 같은 자연에서 즐기는 생활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노랫말을 지은 것입니다. 세속을 벗어나 부귀공명의 일을 뜬구름처럼 인식하는 것을 물외한적(物外閑寂)이라 하는데 이러한 동기로 지어진 곡조로 이는 자칫 이러한 문학 작품이 지어졌던 시대상을 볼 때 세간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기도 하였습니다.

<어부단가> 종장(終章)에서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라고 한 것도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몸은 비록 강호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귀거래(歸去來) 풍조와 어울려 사대부들의 심리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대부 선비들이 벼슬길에서 얼마만큼의 명예를 얻은 후 고향으로 돌아와 마치 신선 같은 자연생활을 누리는 것이 당대의 풍조였는데 이와 어울리는 <어부가>류의 작품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끌세상에서 벗어나 부귀공명 등을 초개처럼 여기는 물외진락(物外眞樂)을 형상한 작품으로서 1549년 창작된 후, 16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사대부가요의 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② 도산십이곡

漁父短歌 五章(어부단가 오장)

(1 장)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의 삶이로다.
한 조각 작은 배를 넓은 바다에 띄워 두고
세상일 다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랴.

(2 장)
앞에 보니 깊고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의 산.
탈 길의 붉은 먼지 업하나 가랴는가.
강호에 달 밝았으니 더욱 무심하여라.

(3 장)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 물고기 꿰어,
갈대꽃 추거운 곳에 배를 매어 두었으니,
소소한 이 맑은 맛을 어느 누가 알 것인가.

(4 장)
산에는 구름이 한가롭게 일어나고 물에는 갈매기가 날아가노라.
욕심 없고 다정한 게 이 두 가지로구나.
한평생 근심 잊고 너희와 놀리라.

(5 장)
이 물을 돌아보니 굽이이 천 리로다.
고깃배에 누욱 실은 것이 적다 하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인재가 넘쳐는가.

漁父歌

漁父歌 九章幷序(어부가 구장병서)

(1 장)
귀밑머리 흰 늙은 어부 갓가에 배를맨서
말하기를 물에 살기 간보다 낫다 하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침 밀물이 다 빠지면 저녁 물 오는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배에 기픈 어부의 한욱 어계 풀썩이도다.

(2 장)
푸른 솔을 입 위에는 시늘한 바람 입고
붉은 여뀌 꽃입 옆에 백로가 한가롭도다.
닻 들어라, 닻 들어라.
동정호 안으로 바람 타고 들어가리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돛대 금치 않은 지나니 좋은 뜻간이 뒤로구나.

(3 장)
존중입 배를 띄워 안갯속에 들어갔다가
때때로 상앗대 저어 달빛 아래 돌아오도다.
저어라, 저어라.
내 마음 가는 대로 모든 일을 잊었노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돛 두드리며 물결 따고 정처 없이 들어가노라.

< 후 기 >

<어부가> 두 편은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내 늙어서 스스로 시골로 물러나 있었는데, 마을이 한가롭고 일이 없기에, 젓사람들이 술잔을 갖고 즐거웠던 것들에서 가히 노래할 수 있는 시문 몇 수를 수집하였다.
비복들에게 가르치고 노래하게 하여, 어하을 돌으면서 소일하곤 하였는데, 가끔과 손가들이 놀그맛에 이 노래를 다시 엮어와 보여주었다.
내가 노래를 살펴보면 말마다 노곤하였고, 뜻이 깊어 그윽하였다.
돌으면 어부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공명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가버이 날아올라 티끌 세상의 밖으로 노닐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이 노래를 얻은 뒤로는, 이전에 즐거면서 기뻐했던 노랫말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이것에만 모든 뜻을 두었다.
손수 책에다 옮겨 적어, 꽃 피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에 술잔을 갖고 벗을 불러 놓고, 이들에게 분강의 조각배 위에서 즐도록 하니, 물이가 더욱 깊되어 근데로움을 있을 수 있었다.
말을 이어갈 제 이치에 맞지 않거나 혹 결저곤 곳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옮겨 전하다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경현에서 남긴 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다하고 고친 것이다.
한 편은 셀두 장에서 석 장을 버리고 아홉 장으로 강가(歌)를 만들어 옮은 것이고, 한 편은 넬 장을 단가(短歌) 다섯 수로 묶어 엽(葉)에 붙여 노래한 것인데, 모양대니 한 묶음의 새 노래가 되었다.
감고 고쳐 바로잡기란 한 것이 아니라, 붙여서 보완한 것도 같은데, 이 또한 하나하나 변경의 본뜻에 바탕하여 보태거나 뺀 것이다.
이름하여 <농암아록(聾巖野錄)>이라 하였다. 보는 이들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여물하지 않는다면 다행한 일이리라.

가정 기유년(1549년) 여름, 유월 초두보루의 초계 남백.
귀밑머리 희끗희끗한 농암의 주인이 분강의 고깃배에서 쓰다.

도산십이곡

이황

이런들 엇더ᄒᆞ며 뎌런들 엇더ᄒᆞ료?
草野愚生(초야 우생)이 이러타 엇더ᄒᆞ료?
ᄒᆞ물며 泉石膏肓(천석고황)을 고텨 므슴ᄒᆞ료? <제1곡>

煙霞(연하)에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태평성대)에 病(병)으로 늘거가뇌
이 듕에 ᄇᆞ라ᄂᆞᆫ 일은 허므리나 업고쟈. <제2곡>

淳風(순풍)이 죽다 ᄒᆞ니 眞實(진실)로 거즛마리
人性(인성)이 어지다 ᄒᆞ니 眞實(진실)로 올ᄒᆞᆫ 말이
天下(천하)에 許多 英才(허다 영재)를 소겨 말ᄉᆞᆷᄒᆞᆯ가. <제3곡>

幽蘭(유란)이 在谷(재곡)ᄒᆞ니 自然(자연)이 듣디 됴해
白雪(백설)이 在山(재산)ᄒᆞ니 自然(자연)이 보디 됴해
이 듕에 彼美一人(피미일인)를 더옥 닛디 몯ᄒᆞ얘 <제4곡>

피미일인 :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임금

山前(산전)에 有臺(유대)ᄒᆞ고 臺下(대하)에 有水(유수)ㅣ로다
떼 만ᄒᆞᆫ 갈며기ᄂᆞᆫ 오명가명 ᄒᆞ거든
엇더타 皎皎白駒(교교 백구)ᄂᆞᆫ 멀리 ᄆᆞᄋᆞᆷ ᄒᆞᄂᆞᆫ고 <제5곡>

春風(춘풍)에 花滿山(화만산)ᄒᆞ고 秋夜(추야)에 月滿臺(월만대)라.
四時佳興(사시가흥)이 사ᄅᆞᆷ과 ᄒᆞᆫ가지라.
ᄒᆞ믈며 魚躍鳶飛(어약연비) 雲影天光(운영천광)이야 어늬 그지 이슬고. <제6곡>

天雲臺(천운대) 도라드러 玩樂齋(완락재) 瀟灑(소쇄)ᄒᆞᆫᄃᆡ
萬卷 生涯(만권생애)로 樂事(낙사)ㅣ 無窮(무궁)ᄒᆞ얘라.
이 듕에 往來 風流(왕래풍류)를 닐어 므슴 ᄒᆞᆯ고 <제7곡>

雷霆(뇌정)이 破山(파산)ᄒᆞ야도 聾者(농자)ᄂᆞᆫ 몯 듣ᄂᆞ니
白日(백일)이 中天(중천)ᄒᆞ야도 瞽者(고자)ᄂᆞᆫ 몯 보ᄂᆞ니
우리ᄂᆞᆫ 耳目(이목) 聰明(총명) 男子(남자)로 聾瞽(농고) ᄀᆞᆮ디 마로리 <제8곡>

古人(고인)도 날 몯 보고 나도 古人(고인) 몯 뵈.
古人(고인)를 몯 뵈도 녀던 길 알ᄑᆡ 잇ᄂᆡ
녀던 길 알ᄑᆡ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제9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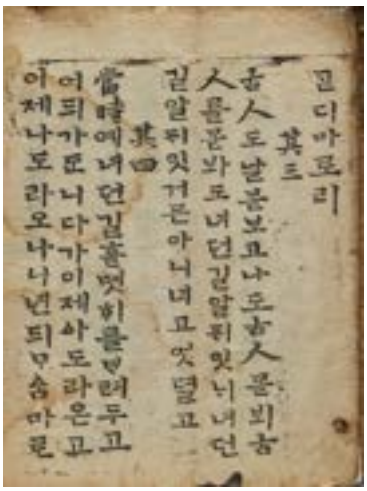
當時(당시)에 녀든 길흘 몃 ᄒᆡ를 ᄇᆞ려 두고,
어듸 가 ᄃᆞᆫ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ᄃᆡ ᄆᆞᄋᆞᆷ 마로리. <제10곡>

靑山(청산)ᄂᆞᆫ 엇뎨ᄒᆞ야 萬古(만고)에 프르르며,
流水(유수)ᄂᆞᆫ 엇뎨ᄒᆞ야 晝夜(주야)에 긋디 아니ᄒᆞ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호리라. <제11곡>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1565년(명종 20)에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6곡(前六曲) 후6곡(後六曲)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는 언지(言志), 후자는 언학(言學)으로 부른다. 고산구곡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시조 중 하나이며, 조선조 시조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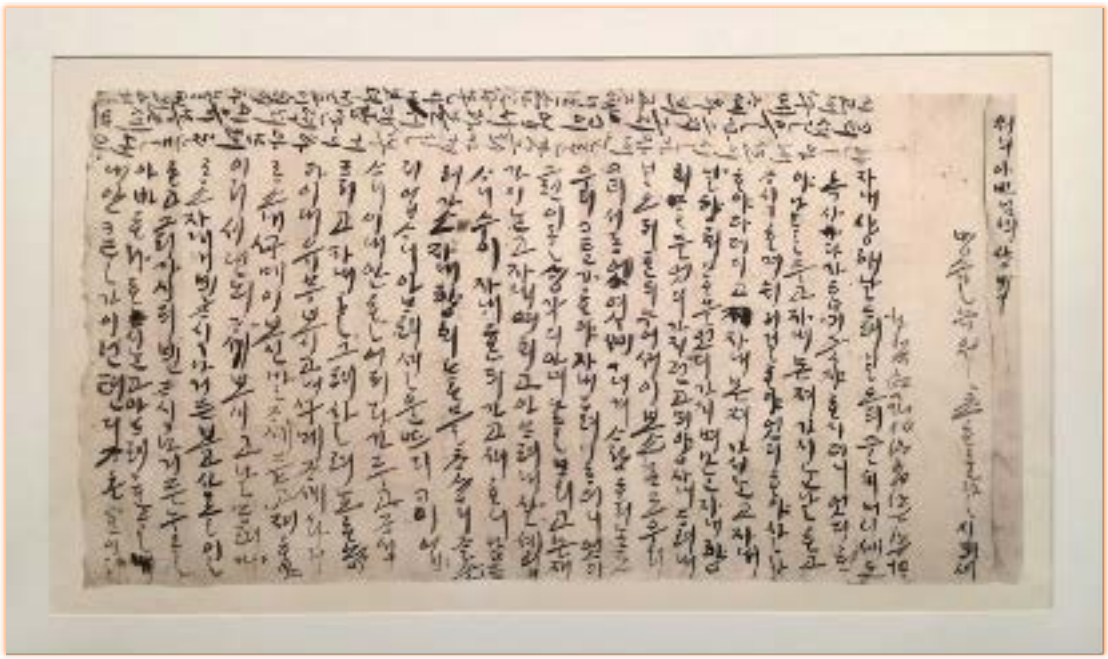
전 6곡은 퇴계 이황이 자연에 은거한 상황에서 각종 심정의 감흥을 읊은 것이고, 후 6곡은 학문과 수양을 통한 성정(性情)의 순정(醇正)을 읊은 작품이다.

도산십이곡



③ 원이엄마 편지

원이엄마편지
면저 떠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적은 편지가 412년만에 발견되
조선판 사랑과 영혼으로 알려지며 감동을 불러 일으켰던 원이엄마편지
조선판 사랑과영혼
원이엄마편지
병술년(1586) 유월 초하룻날
원이아버지께
당신 먼저나 나에게 '둘이 어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고 하셨지요
그런나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나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기져왔었나요?
'어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어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 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산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지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여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알래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모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죄깊 그 것에 기 계실 분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래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④ 음식디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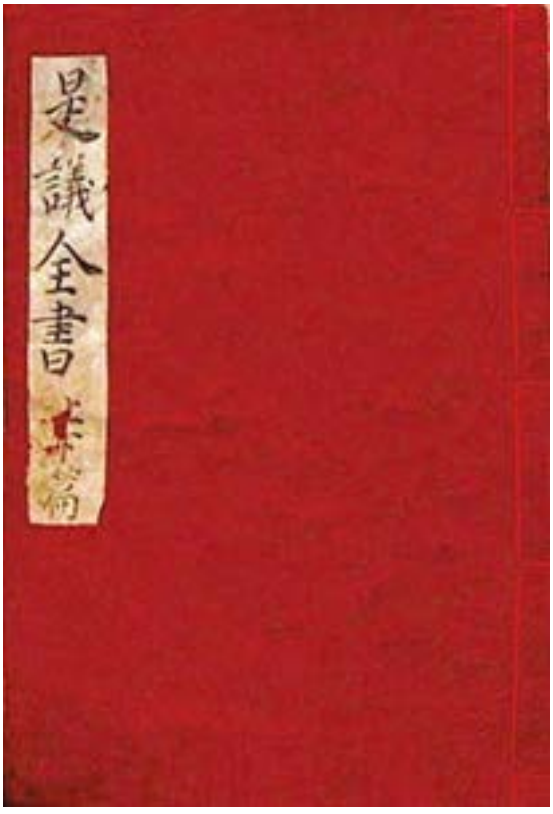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정부인 안동 장씨 장계향이 쓴 것이다. 책 표지에 <규곤시의방>이라 적혀 있는데 남편이나 후손들이 격식을 갖추어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2대 궁중 음식 기능보유자 황혜성과도 인연이 깊다. 황혜성이 이 책의 소식을 듣고 재령 이씨 종손 댁을 찾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그 댁 종손인 이돈 씨를 만났다. 이후 제사에 참석하며 인연이 시작되었다. 황혜성은 이 책에 기록된 음식을 손수 재현하는 것은 물론 현대어 번역까지 도맡아 책으로 출간하면서 <음식디미방>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내용은 면병류, 조과류, 어육류, 채소류, 초류, 주류로 나뉜다. 그중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료나 음식도 있고, 아예 사라졌거나 내용이 바뀌어 전혀 다른 음식으로 변한 것도 있다. 고추가 음식에 널리 사용되기 전에 쓰였기 때문에 음식에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반면, 마른 해삼, 마른 전복, 자라, 꿩, 참새, 웅장 등 오늘날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의 손질법이나 조리법이 종종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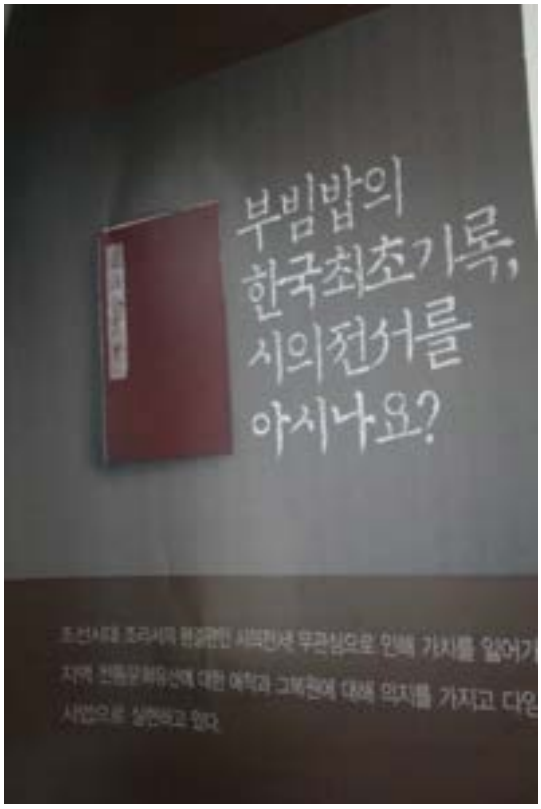
⑤ 온주법

蘊酒法. 조선 후기 170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한글 요리책. 의성 김씨 대종가의 종손들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서울의 궁중음식연구원에 소재 중이다. 책의 권두서명은 "술법"이라고 하고 겉표지에는 온주법이라 적혀 있는데 이는 필사본 한글 고조리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온주법의 온(蘊)은 간직한다는 뜻으로 술을 만드는 법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에 있는 의성 김씨 집성촌 청계공 종택에 소장되어 있다. 조리에 사용되는 조미료는 후추, 생강, 사탕, 천초, 겨자 등으로 고추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에 빙사과가 나오고 빙사과의 문헌상의 첫 등장이 1789년이니, 온주법은 대략 170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⑥ 시의전서

조선 후기 음식을 조리법에 따라 분류·정리하여 편찬한 조리서. 상·하 2편 1책. 필사본. 1911년에 설립된 대구인쇄합자회사(大邱印刷合資會社)에서 인쇄한 상주군청의 편면괘지(片面罫紙)에 모필로 적어놓았다. 이 책은 1919년에 심환진(沈晥鎭)이 상주군수로 부임하여 그곳의 반가에 소장되어 있던 조리책 하나를 빌려서 괘지에 필사해둔 것이 그의 며느리 홍정(洪貞)에게 전해진 것이다. 심환진의 필사연대는 1919년경이지만 원본은 1800년대 말엽의 것으로 추정된다.





⑦ 최초의 한글번역 소설인 설공찬전

1511년(중종 6) 무렵 채수(蔡壽)가 지은 고전소설이다. <중종실록>에서는 '설공찬전(薛公瓚傳)',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에서는 '설공찬환혼전(薛公瓚還魂傳)'으로 표기하였고, 국문본에서는 '설공찬이'로 표기하고 있다. 한문 원본은 1511년 9월에 그 내용이 불교의 윤회화복설을 담고 있어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여 왕명

으로 모조리 불태워진 이래 전하지 않는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순창에 살던 설충란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딸은 혼인하자마자 바로 죽고, 아들 공찬도 장가들기 전에 병들어 죽는다. 설공찬 누나의 혼령은 설충란의 동생인 설충수의 아들 공침에게 들어가 병들게 만든다. 설충수가 주술사 김석산을 부르자, 혼령은 공찬이를 데려오겠다며 물러간다. 곧, 설공찬의 혼령이 사촌 동생 공침에게 들어가 왕래하기 시작한다. 설충수가 다시 김석산을 부르자 공찬은 공침을 극도로 괴롭게 하는데, 설충수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자 공침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 공찬은 사촌 동생 설원과 윤자신을 불러오게 하는데, 이들이 저승 소식을 묻자 다음과 같이 전해 준다. 저승의 위치는 바닷가이고 이름은 단엄국, 임금의 이름은 비사문천왕이다. 저승에서는 심판할 때 책을 살펴서 하는데, 공찬은 저승에 먼저 와 있던 증조부 설위의 덕으로 풀려났다. 이승에서 선하게 산 사람은 저승에서도 잘 지내나, 악한 사람은 고생을 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승에서 왕이었더라도 반역해서 집권하였으면 지옥에 떨어지며, 간언하다 죽은 충신은 저승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여성도 글만 할 줄 알면 관직을 맡을 수 있다. 하루는 성화 황제가 사람을 시켜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의 저승행을 1년만 연기해 달라고 염라왕에게 요청하는데, 염라왕은 고유 권한의 침해라고 화를 내며 허락하지 않는다. 당황한 성화 황제가 친히 염라국을 방문하자, 염라왕은 그 신하를 잡아 오게 해 손을 삶으라고 한다.

이 작품은 귀신 또는 저승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채수는 어렸을 때 귀신이 출현하는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작품 창작에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살아나지도, 그 일을 꿈속의 일로 돌리지도 않는다. 다만 주인공의 영혼이 잠시 지상에 나와 자기 경험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4)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중인 내방가사를 알아봅시다.

내방가사(內房歌辭)는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지은 문학의 한 형태이다. 규방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남쪽 지방의 양반집에서 특히 유행하였다. 한글로 된 것이 많아, 한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며,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예술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현재 두루마리에 한글 궁서체로 쓴 6천여필이 넘는 작품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내방가사 전승과 보존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경북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있다. 남성 위주의 봉건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한 경우가 많다. 출가하는 딸에 필요한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출가한 딸이 고향을 그리워 하는 내용, 형제나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 계절과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 등등, 다양한 생활의 장면들이 담겨있다. 대표적 작가로 허난설헌 등이 있으나, 대부분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다.

내방가사는 주로 고전문학의 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타 학문의 영역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내방가사는 대부분 필사본으로 되어 있어서 국어학적인 해석과 자료에 대한 정확한 서지정보를 확보할 때 비로소 자료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내방가사가 경북 지역의 문중이나 종택 등 민간에 소장된 것이 대부분이고, 향유층이 주로 양반가의 여성이며, 그 내용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속박된 생활 속에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에서 독특한 여성 문학으로 평가된다.

5)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간경도감 자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① 간경도감 자료의 언해

간경도감은 조선 초기 세조 때 불경의 국역과 판각을 관장하던 관립기관이다. 1459년 세조는 유교를 숭상하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역 증보판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는데 불경언해서 월인석보는 안동에 있는 광흥사에서 간행하였다. 조선이 유교국가였음에도 불경의 국역 및 간행이 이루어진 것은 세조의 강력한 왕권 때문이었다. 간경도감은 성종의 등극 이후 폐지되었다. 당시 간경도감에서는 한자본 불경의 간행과 함께 국역본 불경을 간행하고 반포하였다. 숭유억불책을 써왔던 조선시대에 침체해 가는 불교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경전을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 간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 많은 불교 경전을 국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첫째 귀중한 국어학 자료를 많이 생산하여 국어학사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있다. 특히, 국역본 불전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일이므로 오늘날 학계의 연구에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한자본 불서를 국역한 세조의 문화사적 의의도 그 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주요 불전의 국역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이 불교의 근본 이념과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얻어 보기 어려운 귀중한 장소자료(章疏資料)를 많이 생산, 전유시킴으로써 불학연구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② 월인석보 언해

조선 전기 제7대 왕 세조가 세종의 「월인천강지곡」과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1459년에 간행한 불교서이다. 편찬 동기는 죽은 부모와 일찍 죽은 아들을 위한다고 되어있지만,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 죽이고 왕위에 올라 사육신 등 많은 신하를 죽인 끝에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회한과 무상(無常)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석보상절>로 미루어서 모두 24권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중간본까지 합쳐도 완질이 되지 못한다.

이 책은 세종과 세조의 2대에 걸쳐 임금이 짓고 편찬한 것으로, 현존본에 나타난 판각 기법이나 인출(印出) 솜씨 등을 보면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편찬, 간행되었던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세조 때 다시 편집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한글 변천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월인석보 언해>

6) 경북 지역의 탈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①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 오는 탈놀이.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 근원은 서낭제의 탈놀이로서, 우리나라 가면극 전승의 주류를 이루는 산대도감계통극과는 달리 동제에 행하여지던 무의식극적(無意識劇的) 전승

이다. 서낭제에 탈놀이를 놀았던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에서는 하회리와 병산리가 알려져 왔으나, 하회별신굿은 1928년 이래 중단되고 병산별신굿도 거의 같은 시기에 중단되어 하회와 병산의 가면 12종 13개만이 국보로 지정되어온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가면은 주지(2)·각시·중·양반·선비·초랭이·이매·부네·백정·할미 등 10종 11개가 현재 전한다. 가면의 재료는 오리나무이며 그 위에 두 겹, 세 겹으로 옻칠을 한 뒤 색을 칠했다. 하회리에서는 이 탈들을 신성시하며, 특히 각시탈은 서낭신을 대신한다고 믿어 별신굿 때 외에는 볼 수 없고, 부득이 꺼내볼 때는 반드시 산주가 고사를 지내야 한다. 이처럼 의례용 가면으로서의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

탈놀이의 **첫째마당**은 **'각시의 무동' 마**당이**다**. 각시광대는 무동을 타고 꽹과리를 들고 구경꾼들 앞을 돌면서 걸립(乞粒 : 동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패를 짜 돌아다니며 풍악을 울리는 일)을 한다. 이 걸립은 탈놀이 전 마당을 통하여 수시로 행하여졌고, 이렇게 모은 전곡(錢穀)은 모두 별신굿 행사에 쓰고, 남으면 다음 행사를 위하여 세워둔다.

둘째마당은 '주지놀이'로 주지는 곧 사자를 뜻하며, 액풀이마당으로 벽사(辟邪)의 의식무(儀式舞)라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마당은 '백정(白丁)'마당으로 백정이 춤을 추다가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써서 만든 소를 죽여 우낭(牛囊)을 꺼내어 구경꾼들에게 판다. 이것도 걸립의 일종으로, 이 돈도 별신굿 행사에 쓴다.

넷째마당은 '할미'마당으로 쪽박을 허리에 차고 흰 수건을 머리에 쓴 할미광대가 등장하여 살림살이를 한다. 베를 짜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베틀가>에 얹어 부르고, 춤을 추다가 쪽박을 들고 걸립한다. 이처럼 각시걸립과 백정걸립에 이어 할미걸립까지 세 마당의 걸립이 계속되는데, 이 걸립마당들은 이 탈놀이의 주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파계승마당과 양반풍자마당을 위한 도입부 구실을 한다.

다섯째마당은 '파계승'마당으로, 부네(妓女 혹은 小室)가 오금춤을 추며 등장하여 치마를 들고 오줌을 눈다. 이때 중이 등장하여 이 광경을 엿보다가 흥분하여 부네를 옆구리에 차고 도망간다. 이 마당은 대사 없이 진행된다.

여섯째마당은 '양반과 선비'마당으로 양반이 하인인 초랭이를 데리고 나오고, 선비는 소첩인 부네를 데리고 나온다. 초랭이가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서로 인사를 시키고는 자기가 뛰어들어 양반 대신 선비 인사를 받는다. 초랭이는 계속해서 양반을 풍자하고 골려준다. 양반과 선비는 서로 문자를 써가며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고 춤을 추고 노는데, 이때 별채(別差)역인 이매가 나와 환재(還子) 바치라고 외치면 모두 깜짝 놀라 도망간다. 여기서는 관리가 마을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두면서 중간착취하는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이로써 여섯 마당의 탈놀이는 끝난다.

② 예천청단놀음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에서 행해진 대사나 사설이 없는 가면묵극(假面默劇) 형태의 민속놀이다. 201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청단놀음은 주로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 한천(漢川) 백사장에서 장막을 둘러치고 노는데, 음력 정월 보름께에 놀기도 한다. 대사(臺詞)나 사설이 전혀 없는 가면묵극(假面默劇)으로 모든 내용이 춤으로 표현된다. 이 극은 언제부터 놀아왔는지 알 수가 없으나 1935년의 놀음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1981년 이래 다시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다.

청단놀음에 사용되는 탈이나 의상은 모두 한량들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농악도 그들이 직접 치며, 광대도 역시 그들이 담당하였다. 농악은 외마치장단·세마치장단 및 살풀이장단뿐이고, 춤은 덧뵈기가 중심이다. 박으로 만든 탈이 19개, 키(箕)로 만든 탈이 4개이며, 무동(舞童)역을 하는 어린이 외에 광대의 총수가 25명, 농악 악기는 꽹과리·장구·징·북·호적·소고 등이다.

전체 여덟 마당으로 짜여 있는데, 과거에는 갹출 되는 경비에 따라 한두 마당의 가감이 있었다. **첫째마당**은 광대놀음으로, 광대 2명이 북을 치며 춤을 춘다. 때때로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농악 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논다. **둘째마당**은 주지놀음으로, 2명의 주지광대가 저마다 주지판을 들고 서로 부채질을 하고 또 관중 앞으로 다가가서 부채질하면서 춤을 춘다. **셋째마당**은 행의놀음으로, 양반과 사대부가 즐겁게 춤을 추며 노는데 기생인 쪽박광대가 나타나서 양반과 사대부를 번갈아가며 유혹한다. **넷째마당**은 학춤(鶴舞)으로, 학이 나와 춤을 추면 박쥐와 제비가 차례로 나와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다섯째마당**은 지연광대놀음으로, 키로 만든 커다란 탈을 쓴 4명의 지연광대가 긴 수염을 휘날리며 춤을 춘다. **여섯째마당**은 파계승놀음으로, 쪽박광대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탁발승이 지나다가 이를 목격하고 쪽박광대의 유혹에 빠져 놀아나는데 초랭이가 나와 호통을 친다. **일곱째마당**은 바라춤으로, 여승 2명이 고깔을 쓰고 바라를 들고 춤을 춘다. **여덟째마당**은 무동으로, 이동무 4조와 삼동무 2조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Ⅳ. 국어문화관 2관 체험 내용 구성 방안

1. 경북 지역 국어문화 체험 내용 선정

국어문화 체험 내용은 기본적으로 1관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평소의 삶으로 체화할 수 있는 활동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어야 한다. 국어문화 체험 내용을 선정하면서 체험할 내용의 선정 기준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다양한 체험 활동 가운데 현재의 경북 지역 국어문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어문화를 고양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는 학생 수준에 맞는 체험 활동으로 체험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방문하여 전시물을 관람한 후 주어진 체험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넷째는 활동의 결과를 통해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체험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국어문화관 2관 체험 공간에서는 위와 같은 체험 활동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1관 전시 내용별로 체험 활동을 실제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예로 들면 아래 표와 같은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고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별	체험 활동 예시	비고
경북 지역어의 특성	경북 사투리로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체험	
훈민정음 관련 한글문화	훈민정음해례본 체험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경북 지역 옛 한글 관련 자료	시조 써보기 체험 가족에게 편지 쓰기 체험	
경북 지역 내방가사	가사창 배우기 체험	
한글 번역 간경도감 자료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불경 언해본 판각 찍기 체험	
경북 지역의 탈춤	탈놀이 한 부분 실연해 보기 체험	

< 표 2 > 전시 주제별 체험활동 예시

2. 경북 지역 국어문화 체험 내용 구성 예시

1) 경북 사투리로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체험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경북 사투리로 바꾸어 노래를 불러보는 체험은 경북 사투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래와 비슷한 체험 부스를 만들어 이 부스 안에서 경북 사투리로 노래를 불러보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25)]

경북 사투리로 노래 부르기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 노래로 체험할 수 있다. 원곡과 사투리 가사 노래를 비교해서 들어보고 각자 감상을 말해 보도록 한다.

어머나 장윤정	**어머나** **경상도 사투리 가사**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돼요 왜이래요 묻지말아요	와이라노 와이라노 이라지 마라카이 가시나맴은 이랬다저랬다

25) 국립한글박물관 누리한글놀이터 디자인 인용

더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돼요	와이라노 치아뿌라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그입 다물그래이
내사랑인걸요	자꾸 내한테
헤어지면 남이돼요	껄짝되믄 쥑이뿐데이
모른척하겠지만	일빠다로 니를 만났뿟는데
좋아해요 사랑해요	내꺼하고 싶데이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톨아지뿌믄 남되 삐고
소설속에 영화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고마쎄리 뒤안보긋찌
괜찮아요 말해봐요	억쑤로 좋아해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께요	마이 사랑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기절초풍할만큼
여자의 마음은 바람입니다	사랑한데이
안돼요 왜이래요 잡지말아요	동화 속에
더이상 내게 오시면 안돼요	테레비 속에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아 그 누구드라
내사랑인걸요	그 있다 아이가
헤어지면 남이돼요	니도 안다 아이가
모른척하겠지만	그 누고
좋아해요 사랑해요	괘얀테이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말해보래이
소설속에 영화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니를 위해서라믄
괜찮아요 말해봐요	다 줄낀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경상도 사투리 가사
남: 어디야?	남: 어데고?
여: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구.	여: 집이제. 오늘 좀 거시기해서 일찍 누웠제
남: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남: 글나? 쪼매 볼라켔지.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언능 자	올 마이 피곤한갑네 고마 자라
여: 어 끊어.	여: 어 드르가.
근데! 니가!	근데! 이 지기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와 거서 기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와 거서 기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그르쿰 잘해 줏는데
발등을 찍혔네	제대로 미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그래 너 어요 니 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와 거서 기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억시 디다 카길래
잘자라 했는데	퍼뜩 자라 켔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혹시 마이 아픈긴가
걱정도 했는데	약도 사갈라 캤는데
뭐하는데	와카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하하 욘뇬 요기요~
도대체	참말로~
너네집은 연신내	너거집은 광안리
난 지금 강남에	내는 지금 해운데
시끄런 클럽을	시끄러븐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사부지기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이느무 가스나가 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와 거서 기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 어데 너거 집이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눈까리 비비가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보고 또 처 봐도
딱봐도 너야	딱봐도 니야
오마이 너야	망할 것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와 거서 기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와 거서 기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이빠이 믿었뿟는데
발등을 찍혔네	완전히 미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그래 니 고마 니 야
이런건 사랑이 아냐.	니 오늘 얼반 지긴다
노는 남자 싫다매	노는 남자 싫담서
술은 못한다매	술은 못 헌담서
그것 땜에 나는 다	그것 땜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끊어부렀는디
지금 넌 왜	시방 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쌔바닥이 꼬인 건디
도대체	진짜로
근데 지금 니 옆에	근데 시방 니 옆에
이 남잔 누군데	머시마 누군디
교회 오빠하고	교회 머시마랑
클럽은 왜 왔는데	클럽은 왜 왔는디

너네 집 불교잖아.	느그집 불교자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우째 거그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머땀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헛것을 봤당가
보고 또 보아도	눈 비비고 봐도
딱봐도 너야	딱봐도 너네
오마이 너야	기여 왐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머땀시 거그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머땀시 거그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사랑을 믿고 자폈는디
발등을 찍혔네	디어부렀네
그래 너 그래 너 야너	기여 니여 야
이런건 사랑이 아냐.	사랑은 이거시 아니제
그래 너 그래 너 야너	기여 니여 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은 이거시 아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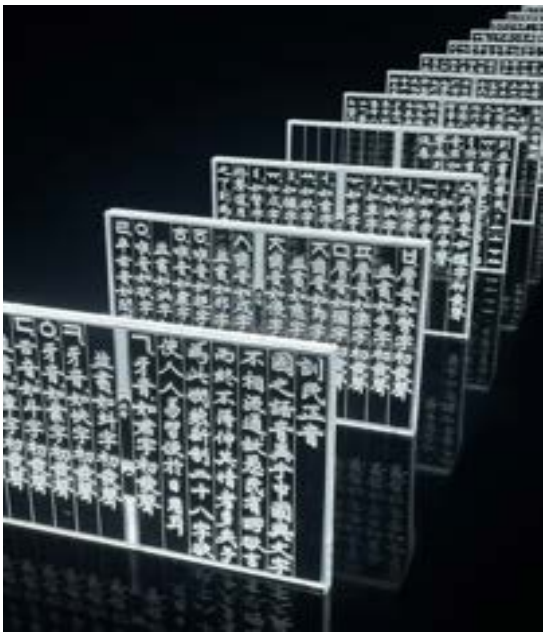
경상도 사투리를 잘 살린 노래인 강산에 가수의 "와그라노" 들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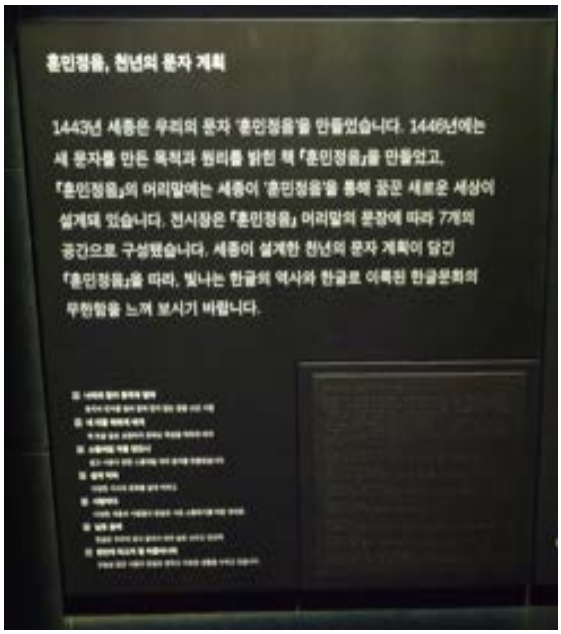
강산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오오 와그라노
워우워워우와 그래싼노
뭐라 케싼노 뭐라 케싼노니(니 또 와그라노)
우짜라꼬이요 우짜라꼬내내(내는우째란 말이고)
우짤라꼬 니 우짤라꼬 그라노(니 단디 해라!)
마 고마해란니 고마해란니(니그라다 다친데이)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오 워우워워우와 그래싼노
뭐라 케싼노 뭐라 케싼노니(뭐라 케싼노 뭐라 케싼노니)
우짤라꼬이요 우짜라꼬내(우짜라꼬내 우짜라꼬내)
우짤라꼬 니 우짤라꼬 그라노(우짤라꼬 니 우짤라꼬 그러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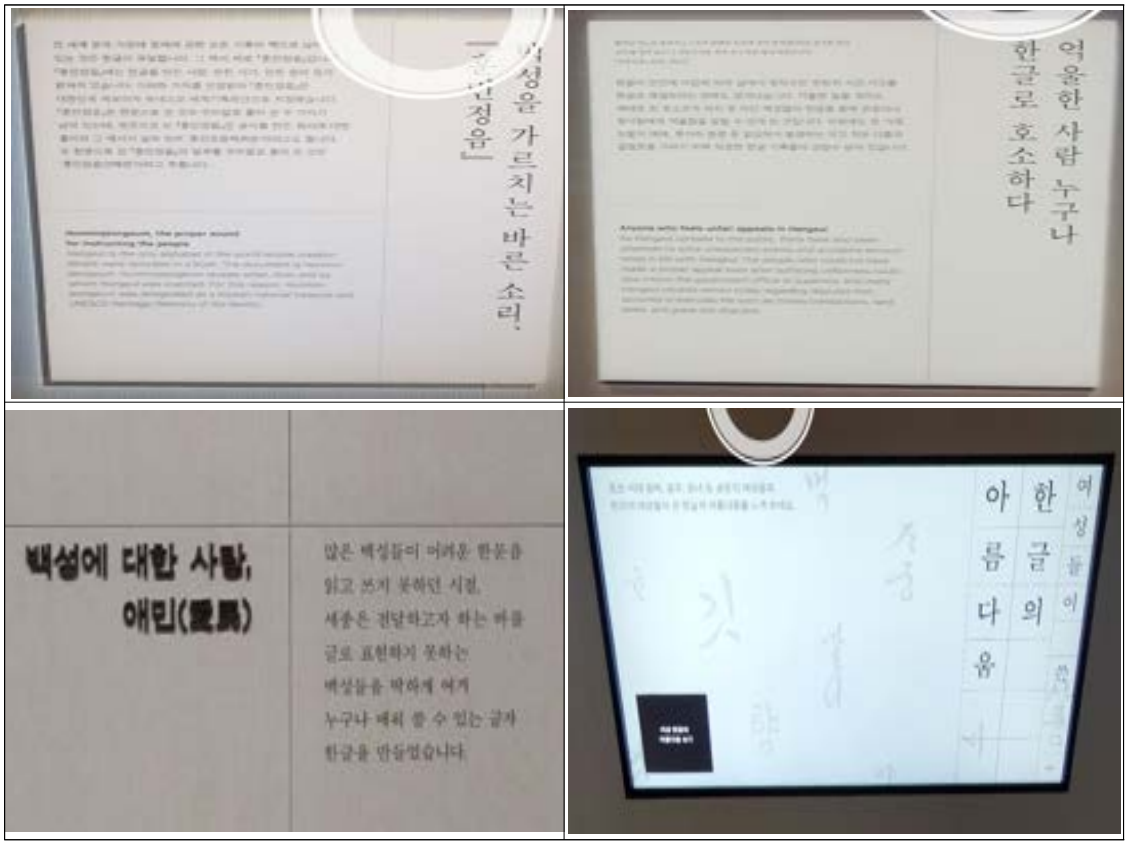
마 고마해란니 고마해란니(마 고마해란니 고마해란니)
또 와그라노 또 와그래싼노 또 와그라노 또 와그래 싼노
(간주중)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오오 와그라노 워우워워우와 그래싼노
뭐라 케싼노 뭐라 케싼노니(뭐라 케싼노 뭐라 케싼노니)
우짤라꼬이요 우짜라꼬내(우짜라꼬내 우짜라꼬내)
우짤라꼬 니 우짤라꼬 그라노(우짤라꼬 니 우짤라꼬 그러노)
마 고마해란니 고마해란니(마 고마해란니 고마해란니)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와그라노 니또 와그라노
오오 와그라노 워우워워우와 그래싼노
또 와그라노 또 와그래싼노 또 와그라노 또 와그래 싼노
또 와그라노 또 와그래싼노 또 와그라노 또 와그래 싼노

2) 경북 지역에서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을 체험해볼까요?[26)]





26) 국립한글박물관 상설 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디자인 일부 인용



훈민정음해례본 체험 공간을 통해 훈민정음에 관한 여러 면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을 한글 타자기와 일본의 타자기, 그리고 한문과 일본 문자를 컴퓨터로 입력해보는 체험을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도록 한다.

천지인 한글 입력 방식

영문 입력 방식

일본어 타자기

중국어 키보드

중국어 입력 방식

중국어 키보드

위와 같은 글자 입력 방식을 볼 때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한글이 가장 편리하고 정보화에 유리함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 다른 나라보다 빨리 발전한 것도 우리 한글이 정보화에 유리한 글자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한글 캘리그라피를 체험해봅시다.

한글 캘리그라피를 체험하게 되면 한글이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한 글자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다만 캘리그라피를 한 번 배운다고 바로 이쁘게 글씨를 쓸 수는 없기에 짧은 체험 시간 안에 한글 캘리그라피를 제대로 효과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캘리그라피를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캘리그라피 팬을 준비해 놓는 것을 기본으로 컴퓨터에서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여 출력한 후 마른 꽃 등으로 장식하여 작은 액자를 만들거나 부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으면 체험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한글 캘리그라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화관이 만들어져 운영되면 전문적으로 한글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는 강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캘리그라피를 통해 빈 공간에 아름다운 장식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체험하더라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것도 좋고 때에 따라 학생들이 체험하는 시간에 강사가 지도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하여 글자를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글자를 직접 써보게 하는 체험은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tr><td> </td><td> </td></tr>
<tr><td>한글의 아름다움에 꽃 피우다</td><td>행복하다 말하니 행복이 찾아 오네요</td></tr>
<tr><td> </td><td> </td></tr>
<tr><td>하늘과 사람과 땅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담다</td><td>오늘이 꽃처럼 예쁜 날이기를</td></tr>
</table>

3) 시조 써보기 체험

먼저 학생들에게 1관 전시관에서 본 시조를 상기시킨 후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시조창을 들어보도록 한다. 시조창하는 모습을 담은 VCR을 통해 시조창의 가락

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전문적으로 하는 시조창과 시조창을 배운 학생이 창하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어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줄여준다. 때에 따라서는 시조창을 한 번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지도자가 먼저 시창을 하고 따라 부르도록 하는 과정으로 시조창을 해본다. 시조창을 하려면 먼저 노래할 사람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단순히 기능으로의 노래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시조창을 하도록 지도한다.

시조창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후 시조 써보기를 시도한다. 시조 쓰기를 할 때는 시조의 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운율의 틀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시조 짓기 틀

제목 :				
초장				
	( )	( )	( )	( )
중장				
	( )	( )	( )	( )
종장				
	(3)	( )	( )	( )

시조 쓰기 지도는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다. 시조의 틀에 맞추어 자유로운 연상으로 시조를 쓰도록 하면 좋은데 무엇을 쓸 것인지 생각을 대화로 나눈 후 시조를 쓰게 할 수도 있고, 쓰고 싶은 내용을 줄글로 써본 다음에 시조의 틀에 맞추어 다듬는 방법도 있다.

<글감 '나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 시조 짓기>
S1 : 어제 우리 가족은 산에 갔었는데 아직 산에 있는 나무에는 새잎이 나지 않았었어. S2 : 나는 공원에 갔었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에는 꽃이 피어 있어서 아주 예쁘더라.

S1 : 나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지. 시원한 그늘도 주고 새와 다람쥐도 쉬게 하니까 말이야.
S2 : 열매도 주고 나중에는 나무 자신이 우리들이 사는 집도 되고 또 공책도 되어 주니 우리가 너무 나무의 신세를 지는 것 같아.
S1 : 나무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을까? 나무의 소리를 듣고 싶어.
S2 : 나무는 우리에게 모든 도움만 주고 자신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지. 나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깨끗한 공기와 물이겠지.
S1 : 그래 이런 고마운 나무들을 우리가 더 잘 보살펴 주어야 할 거야.
S2 : 그리고 우리도 나무처럼 씩씩하고 푸르게 살아야겠지.

⇓

나 무

나무야 너는 어찌 좋은 일만 하며 사니
땀 흘린 농부는 나무밑에 쉬게 하고
날다가 힘든 새 쉬게 하니 더 좋은 일 있겠니.

♠생각을 글로 나타낸 후 시조로 써봅시다.♠

저 캄캄한 하늘 위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 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슬픈 사람, 우울한 사람, 짜증내는 사람들을 모두 껴안고 싶다. 그 이유는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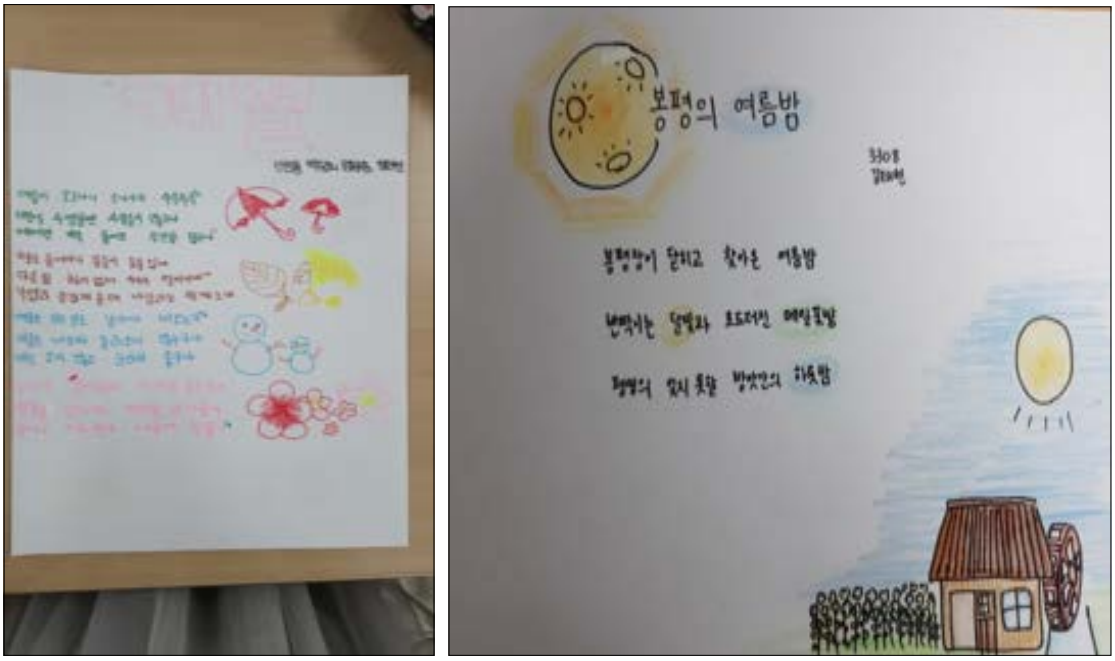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고 크나큰 자신감을 주고 싶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 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한 식구가 되어갈 때 나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것 같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웃음 짓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작은 별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것 같다.

⇓

내가 만일 별이 된다면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모두에게 희망 주리
그 얼굴 미소 띠고 별 볼 때 기쁘고 행복하리.



< 학생 시조 쓰기 작품 예시 >

4) 가족에게 편지 쓰기 체험

원이엄마 편지를 학생들에게 읽게 한 다음 학생들이 편지를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상인 가족에게 편지 쓰기 체험을 하도록 한다. 좋은 예시가 되는 편지글을 여러 편 보여주고 몇 편은 읽어 준 뒤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편지를 쓰도록 지도한다. 어떤 두드러진 형식보다는 학생들이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가족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면 대체로 잘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써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면 학생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 그저 쓰는 데 급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생각이 잘 드러난 편지를 골라서 분위기 있게 읽어 주고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하도록 하면 좋은 편지를 쓰게 된다. 이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준비하여 학생이 쓴 편지가 실제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가족에게 편지 쓰기 학생 작품 예시 >

5) 가사창 배우기 체험

안동 지역에서 많은 쓰였던 내방가사의 전통을 이어 아직도 안동 지역에서 안동 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보존회를 중심으로 전국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 대하여 학생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

에 가사창을 한 번 배워보는 체험을 하게 되면 국어문화를 전승하고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사창의 체험 방법은 강사가 있을 때는 시연을 듣고 따라 하고 강사가 없을 때는 녹음된 가사창을 듣고 따라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녹음 시설을 통해 본인이 창을 한 것을 녹음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예시 가사와 같은 형태로 학생들이 개사하여 쓰도록 한 뒤 개사한 내용으로 가사창을 하도록 지도한다.

6) 훈민정음해례본과 불경 언해본 판각 찍기

우리 조상이 남긴 훈민정음해례본과 각종 불경 언해본의 판각을 탁본하는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탁본은 옛 방식 그대로 체험해보도록 하는데 습탁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식인 건탁 방식으로 진행한다. 먹방망이는 헝겊에다 곡식이나 솜, 고운 톱밥, 모래 등을 싸서 만드는데 여기에 먹물을 묻혀 두드려서 글씨나 문양을 박아내는 방법으로 탁본한다. 찍히는 부분인 종

이에 주름이 잡히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손으로 종이를 눌러가면서 다른 손으로 먹방망이를 두들겨 글자가 나타나게 하되 골고루 힘을 주어 글자의 자획이 빠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 탁본을 완성해보도록 한다.

7) 탈놀이 한 부분 실연해 보기

하회별신굿탈놀이 6마당 체험하기

순	마 당 명	세부 내용
1	무동마당	ㅇ 마을 수호신인 성황신의 현신인 각시광대가 무동을 타고 마을을 돈다.
2	주지마당	ㅇ 신성하고 무서운 상상의 동물 주지가 춤을 춤으로써 잡귀

		와 사악한 것을 쫓아내 탈판을 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암수가 싸워 암컷이 이김으로 풍농과 다산을 기원하기도 한다.
3	**백정마당**	ㅇ 백정이 도끼와 칼을 넣은 오장치를 들고 등장하여 춤을 춘다. 이때 어슬렁거리며 등장한 소를 보고 본능적으로 소를 때려잡는다. ㅇ 소의 배를 갈라 염통과 소불알을 떼어 구경꾼들에게 염통과 우랑(牛囊-소의 불알)을 사라고 희롱한다. 성을 금기시하며 은밀하게 성을 즐기는 유교 체제의 도덕률과 양반들의 도덕적 위선을 비판한다
4	**할미마당**	ㅇ 시집간 지 사흘 만에 과부가 된 할미의 구성진 베틀가를 통해 배고픔과 시집살이의 괴로움,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반전을 표현한다.
5	**파계승마당**	ㅇ 종교의 타락성을 풍자한 마당으로 아름다운 부녀자를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파계하는 중, 그리고 초랭이와 바보스러운 이매가 등장하여 웃음과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6	**양반선비마당**	ㅇ 양반, 선비의 위선과 허풍을 풍자한 마당이다. 동영상 자료 : https://youtu.be/fxnb-kgprVI

< 표3 하회별신굿탈놀이 6마당 체험하기>

< 양반 선비 마당 > 배워 보기

<상쇠의 가락에 맞춰 양반, 선비, 부네,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을 추며 마당은 곧 흥에 넘친다. 그러나 양반과 선비는 부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여 춤은 두 사람이 부네와 같이 춤추려는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 부네는 요염한 춤을 추며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두 사람의 심경을 고조시킨다. 이것을 간파한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를 싸움 붙이려는 계략을 꾸민다. 우선 양반에게로 가 무언가를 얘기한다. 이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데로 선비에게로 가 그를 데리고 무언가를 얘기하면 선비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를 기회로 양반은 부네와 춤을 계속 추게 되었다. 관중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던 선비는 부네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는 '속았다' 는 생각에 노발대발하여 양반을 부른다.>

선비 : "여보게 양반-"
<이를 신호로 상쇠는 가락을 멈춘다.>

선비 :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비 :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양반 :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선비 :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 보다 낫단 말인가?"
양반 : "암, 낫고말고."
선비 : "그래, 낫긴 뭐가 나아"
양반 :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선비 :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양반 :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뱀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
선비 : "아, 문하시중. 그까지꺼... 우리 할뱀은 바로 문상시대인걸."
양반 :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머로?"
선비 : "에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말일세"
양반 : "허허, 그것참 빌꼬라지 다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선비 : "에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
선비 : "뭐 그까지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양반 :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다가 잽싸게 끼어 든다.>

초랭이 : "헤헤헤, 난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껴.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앤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세경 말이시더-"
<고수는 육경을 한 소절마다 장단을 쳐준다. 초랭이는 '머슴의 세경' 을 더욱 강조하여 자신의 세경에 못마땅함을 보인다.>

선비 :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카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양반 : "여보게 선비, 우리 싸워봤짜 피장파장이꺼네 저 짜있는 부네나 불러 춤이나 추고 노시더."
선비 : (잠시 생각하다가) "암, 좋지 좋아"
<이어 양반과 선비가 동시에 '예, 부네냐-' 하고 부네를 부르면 상쇠는 자진모리 가락으로 마당을 이끈다. 이젠 양반, 선비가 부네를 두고 다툼하는 춤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화합의 '노는 춤'을 춘다.(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홈페이지 대본 인용)

▶ 이 장면에서 초랭이의 역할은?

'육경'의 의미를 엉터리로 제시하는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이러한 초랭이의 언어유희에 동조하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분은 다르지만 세 사람이 차이가 없는 인간임을 드러내어 신분 질서 사회의 허구성을 폭로함.

▶ 이 장면에 사용된 언어유희

언어유희가 나타난 말	내용
팔대부 (八大夫)	'사대부(士大夫)'의 '사(士)'와 발음이 같은 숫자 '사(四)'를 끌어와 '팔(八)'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지체가 높음을 자랑함. → (신분)의 명칭을 모르고 있음.
(문상시대 (門上侍大))	('문하시중(門下侍中)')에서 '하(下)'를 '상(上)', '중(中)'을 '대(大)'로 바꾸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더 높은 벼슬을 지냈음을 자랑함. → 벼슬의 명칭을 모르고 있음.
팔서육경 (八書六經)	'사서삼경(四書三經)'에서 '사(四)'의 배수인 '팔(八)', '삼(三)'의 배수인 '육(六)'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학식이 높음)을/를 자랑함. → 학문의 명칭을 모르고 있음.

<표4> 언어유희 사용 해설

• 표현 의도: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양반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의식이 담겨있다.

3. 효율적인 체험 프로그램 구성안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이 구축되면 학교별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관람과 체험을 하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지만 단체로 현장체험학습을 오는 경우는 체험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하여 학교에 알린 후 학교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1관 전시관에서 1시간 관람한 후, 2관 체험 부스별로 20분에서 30분 정도씩 시간을 배정하여 체험하는 것이 좋은데, 체험 부스의 경우 한 번에 5~6명 정도씩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아래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계획을 간략하게 세워 본 것을 제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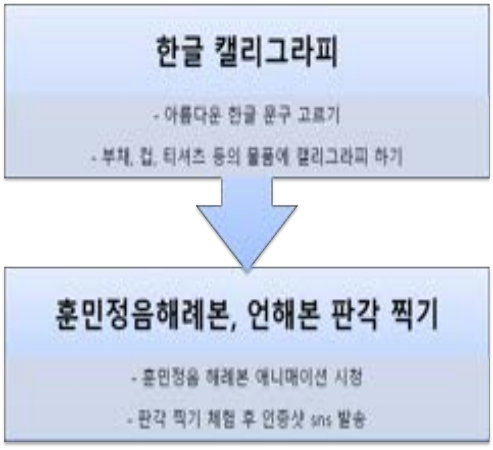
1) 초등학교 5학년 기준 체험 프로그램 예시

전시는 1시간 정도를 배정하여 관람하되 체험학습장 기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하는 것이 좋다.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2시간으로 구성하였는데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첫째 시간에는 경북 사투리 퀴즈 맞추기 프로그램부터 체험한 후 동요를 사투리로 배우기를 하고, 이후 배운 동요를 사투리 노래방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강사 선생님을 통해 안내를 한 후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한글캘리그래피 체험이나 훈민정음해례본 판각 찍기 체험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만든 것을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북국어문화관 프로그램 체험 계획

❍ 일시: 2024. 5. 14.(화) 13:00 - 16:00
❍ 참여 대상: ○○초등학교 5학년 24명
❍ 장소: 경북국어문화관 1관, 2관
❍ 참가비: 무료
❍ 세부 체험 계획

구분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내 용	비고

경북 국어문화 관람	13:00 - 14:00	1관	국어문화 미션 카드를 채워라!		준비물 큐알코드 미션카드 (초등용)
경북 국어문화 체험	14:00 - 15:00	2관	재미있는 사투리		동요 개사 체험
	15:00 -16:00		캘리그라피 & 훈민정음해례본, 언해본 판각 찍기 체험		교차형 진행 또는 선택형 진행

<표5> 초등학교 5학년용 체험프로그램 예시

※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중학교 2학년 기준 체험 프로그램 예시

중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흥미에 따라 체험 부스를 선택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학생 수가 많아서 몰릴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질서가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중학생의 경우 첫째 시간은 1시간 관람으로 진행한다. 경북 지역어 문화에서 한글문화, 다음에 탈춤 알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둘째 시간에는 재미 있는 경북 사투리 체험을 하고, 노래로 사투리 배우기, 배운 노래로 사투리 노래방 체험을 하도록 한다. 셋째 시간에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장면을 재연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한다. 팀별로 재연할 장면을 각색하도록 지도한 후 기본적인 재연 장면을 비디오로 시청하거나 강사의 시범에 따라 실제 풍자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지도한다.

경북국어문화관 프로그램 체험 계획

❍ 일시: 2024. 5. 14.(화) 13:00 - 16:00
❍ 참여 대상: ○○중학교 2학년 24명
❍ 장소: 경북국어문화관 1관, 2관
❍ 참가비: 무료
❍ 세부 체험 계획

구분	일정	장소	프로그램명	내 용	비고
경북 국어문화 관람	13:00 - 14:00	1관	국어문화 미션 카드를 채워라!	**경북 지역어 문화** 지역어 특성 알기, 내방가사 알기 ↓ **한글 문화** 훈민정음, 옛 한글 자료 ↓ **탈춤 알기** 하회 별신굿 탈놀이, 예천청단놀음	준비물 큐알코드 미션카드 (중등용)

경북 국어문화 체험	14:00 - 15:00	2관	재미있는 사투리	**재미있는 경북 사투리** 경북 사투리 퀴즈 맞히기 ↓ **노래를 사투리로 배우기** 재미있게 대중가요를 사투리로 개사해 배워 보기 ↓ **배운 노래로 사투리 노래방 체험** 한글 자모 새겨진 티셔츠 선물	가요 개사 체험
	15:00 -16:00		탈춤에 풍덩 빠져봐!	**풍자에 풍덩!** - 탈춤에 나타난 풍자의 요소 알기 - 주변의 사례를 적용 ↓ **탈쓰고 경북 문화에 풍덩!** - 하회별신굿 탈과 의상을 착용 - 적용한 사례를 즉흥적으로 표현	준비물 탈놀이 소품

<표6> 중학교 2학년용 체험프로그램 예시

※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프로그램 조정 가능

Ⅴ. 국어문화관 운영 방안

1.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설치 방안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 방법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먼저 국어문화관으로 만들 건물을 정하고, 국어문화관이라는 성격에 맞게 시설을 개축할 수 있는 설계안을 공모한 후 선정된 설계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어문화관의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공모안을 받아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국어문화관을 꾸미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가장 쉽게 국어문화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국어문화관을 설치하게 되면 다분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어문화관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국어문화관의 내용 구성을 업체에만 맡기게 되면 물론 공모안을 보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할지라도 선정된 업체의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또는 해당 업체 담당자의 국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한 능력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천차만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어문화관 설치 결과가 해당 업체나 담당자의 능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게 되는 방식은 운영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국어문화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국어문화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설치 방안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준비 과정과 사전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 먼저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설치를 위해 다녀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국어문화관 구축 준비 TF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국어문화관 구축 준비 TF팀>이 구성되면 적어도 2~3년은 함께 국어문화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TF팀을 꾸릴 때는 관심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어문화관 설치 공모안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고,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우수한 공모안을 낸 사람을 TF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 활동을 통해 전시 및 체험 내용들을 미리 구성하여 나중에 내용을 구축할 때 이런 내용을 업체에 효과적으로 디자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만들어진 내용을 TF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재조명하

고 알리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국어문화 체험전 개최를 추진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체험전 개최했던 결과물들을 모아 경북 지역 국어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별 국어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이것들을 모아 국어문화 축제를 열게 되면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시물이 만들어질 것이고, 전시와 체험의 노하우를 쌓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어문화관에 전시할 전시물을 만들고, 국어문화 축제에서 체험해보았던 것들을 수정하여 체험 내용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활용도 높은 국어문화관을 만드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국어문화관 설치를 업체에만 맡겨 뚝딱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시와 체험의 노하우가 쌓인 국어문화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국어문화관에 전시되어야 할 내용은 전시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어문화란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화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것도 그 누구도 아닌 경북사람인 우리들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시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 국어문화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쓰는 살아있는 언어문화와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적인 장면들로 구성하여 경북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시물들이 모여져야 그것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다. 경북 지역의 지난 국어문화의 흔적만을 전시한다면 누구라도 길게 흥미를 느끼기 힘들 것이고, 현재의 국어문화 향유를 통해 새로운 국어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국어문화관 설립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문화관 설치를 위해서는 <국어문화관 구축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다년간의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별 국어문화 체험전을 열었던 노하우를 결집하여 살아있는 국어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어문화관을 만들어 가는 방법으로 국어문화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관리 방안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이 구축된다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국어문화관을 구축하였다 해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국어문화관을 만든 목적은 곧 퇴색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

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 방안으로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어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국어문화 전시와 체험을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가 확보될 수 있다면 국어문화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생각해보도록 하자.

1)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떤 체험교육기관이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전시와 체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험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물 보수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어문화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문화관 관리 부서에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문화관 사업을 충실하게 하면 경북도청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화의 산업화에 협조하며 경북 지역 국어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경북도청과 함께 할 일이 많을 것이며 경북 지역의 문화 진흥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어문화관이 경북 지역의 한글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체험처가 된다면 경북도청이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산업 육성에 협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한글문화의 산업화 부분은 '한글문화·콘텐츠산업육성민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해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국어문화관 구축 운영이 한글문화 체험처로서 성과를 올린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경북교육청은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구축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그 내용을 알차게 채워 나가기 위해 기초적인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활용도에서 차이가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국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력이라면 국어문화관을 설립한 취지에 맞게 국어문화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어문화에 대한 전시와 학생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분야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전시와 체험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국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이 담당자가 되면 현재의 전시와 체험을 이끌어나가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어문화관이 만들어지면 국어문화에 소양이 있는 교육연구사가 전시와 체험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연구사를 담당자로 배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국어문화에 대한 소양이 있는 담당자가 국어문화관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어문화관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반드시 국어문화에 대해 적절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해야 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어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지속적인 국어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처음 구축한 국어문화관에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모든 면모를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어문화관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전시물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내용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를 국어문화관에 추가 설치하여 주제별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과거의 국어문화에 관한 내용만 다룰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국어문화를 이어 현재의 국어문화의 면모와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더 좋을 수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쓰고 있는 국어문화에 어떤 연원이 있는지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알게 된다. 현재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들의 연원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어문화관에서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의 여러 자료들을 찾고 알리는 콘텐츠도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어문화를 더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국어문화관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 및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는 경북 지역 정신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고 향유·보전·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으로 경북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보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겨레 문화의 발상지였던 경북 지역의 국어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국어문화관의 운영은 현재와 지난 시대의 국어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국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해줄 것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국어문화를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경북도청에서 추진 중인 한글문화 산업화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교육기관과 함께 경북 지역에 산재한 국어문화 유산을 모아 전시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경북도청에서 추진하는 한글문화 산업화에 적극 협조하며 경북 지역 문화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국어문화관을 운영한다면 1관은 전시관으로 2관은 체험관으로 운영하되 전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지역의 사투리 특성, 훈민정음해례본의 유일한 발견지로서 경북 지역의 한글문화, 다양한 유형의 옛 한글 관련 자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 중인 내방가사,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간경도감 자료,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청단놀음과 같은 경북 지역의 탈춤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시물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 효과적인 전시 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또 2관의 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예시를 보이기 위하여 경북 사투리로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체험, 훈민정음해례본 체험,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시조 써보기 체험,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 체험, 가사창 배우기 체험,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불경 언해본 판각 찍기 체험, 탈놀이 한 부분 실연해 보기 체험 등의 예시를 만들어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 활동을 만들어 제시한 것은 국어문화관의 체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이 체험을 통하여 국어문화를 고양할 수 있는 체험 내용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의 전시 내용과 체험 내용을 제시해 보긴 했지만 본 연구팀이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추어 흥미를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와 체험 내용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국어문화관에 전시되어야 할 내용은 전시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국어문화란 살아있는 우리들의 문화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것도 그 누구도 아닌 경북 사람인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경북 사람인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 국어문화관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국어문화관을 몇몇 사람들이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로 바로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국어문화를 찾고 알리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별 국어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와 전시가 선행되고, 그러한 결과물들을 국어문화관으로 모아가는 방식으로 국어문화관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학생들의 사투리가 살아있는 언어문화, 경북 지역 국어문화의 특징적인 장면들과 경북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시물들이 모여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의 전시물이 되어야 그것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관리와 운영까지 생각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의 뒷부분에서 간략하나마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을 위한 설치 방안과 관리 방안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실제 국어문화관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국어문화에 대해 인식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어문화관 운영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 결실로 경북교육청에서 국어문화관을 운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제언

본 정책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국어문화관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경북 지역별로 국어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이러한 결과를 모아 국어문화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경북 지역 국어문화에 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경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 문화산업 활성화(Boom-up)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한글 문화 콘텐츠 발굴, 국어 문화유산 디지털화, 제3의 훈민정음해례본 찾기, 우리말 큰 잔치, 경북 사투리 경연대회 개최, 한글 간판 보급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 중학교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2022), 경상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11호

김대행(2006), 국어생활·국어문화·국어교육, 국어교육지 119호

김덕호(2020),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현황과 내용 분석, <우리말글> 제84집, 우리말글학회

김미형(2021), '국어문화'의 인식 정립을 위한 시론, 공공언어학 제6호, 한국공공언어학회

김윤희(2019), 내방가사의 전승 과정을 통해본 여성들의 기록과 소통문화, 국학연구 VOL 40

김윤희 외(2020),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국립한글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발간(202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성병희(1978), 우리 고장의 민속 - 「예천 청단놀음」편, 경상북도

심동섭 총괄(2020), 쉽게 읽는 훈민정음, 국립한글박물관

이가원(2019), 문화유산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이두현(1997), 주석본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2019), 옥천군

따뜻한 경북교육

정책연구(현장)2023-04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경북 지역 국어문화관 운영 기초 연구

책임 연구원 박현동 (청통중학교 교장)

공동 연구원 김유나 (청통중학교 교사)
박진형 (북삼고등학교 교사)
서현주 (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미형 (신상중학교 교사)

자문 위원 이강옥 (영남대학교 교수)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발행인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박용휘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054-840-2278)
보고서탑재 : http://shool.gyo6.net/gber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홈페이지/정책연구/정책연구담당/정책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